

여성보안용

이것은 선거 정책 자료집이 아닙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여성 자치 질서를 위하여...

너의 일상에 침을 뱉어라

「일상/자치/저항문화 기획단」
에서 드립니다.

한라산 집시

나의 이상에 처음 반여라!

한라산 집시

바람이면 무엇이 부는지 모르나
 바람이 슬픔이 된 날엔
 여자 보는 것이 죽어가고 있는 듯이
 먼훗날 여자를 만나
 삼푸취발유 냄새나 질질 흘리는
 물라지치 않는데 지상이 그윽한 밤에
 그대의 콧수염과 나와 네 머리칼을
 회개한 무로 만들고 싶구나
 미안하구나 심한 말을 겸 씹듯 쉽게
 구두가 사람을 끌고 다니기 힘들
 때때로 여자노릇 힘들어
 답답한 브래지어로 싸맨 젖가슴으로
 다달이 생리로부터
 지켜야 할 온갖 정조로부터 날아가
 외도하고 싶구나
 한사내의 깊고 허망한 한쪽대기가
 지상의 긴 소변을 마치고
 안개미린 직장을 폐업해서 싱싱해진 맨발
 두루와 놀다 쓰러지리라
 한라산을 누비고 부니다
 한라산의 암초가 된 집시 노

신현경의 「세기말 블루스」 중

차례

연 글	3
"일상/자치/저항문화"	
너의 일상에 침을 뱉어라	5
절망에서 적대로	7
제언합니다	
한많은 이 세상 수다로 풀자! 옥옥향집 여자들	11
일상의 정치화 1	
매맞는 일상	14
일상의 정치화 2	
질병과 육체	30
기획 1	
학내여성복지 - 일상과 정치의 이분법	33
기획 2	
학생회, 여학생회, 그리고 새로운 시도	39
기획 3	
이제 우리가 나설 때이다!	40
제언합니다	
여성자치연합(가칭)	49
일상에 침을 뱉을 영화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레이피스트, 모리스	51

여는 글

일상 / 자치 / 저항 문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강력한 보수화 바람이 불고 있다. 대선 전 해는 항상 공안 정국이 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하면서도 금년에는 유달리 정권 유지를 위해 사회 모든 면에서 마녀사냥이 행해지고 있다. 언론은 갑자기 우리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사회가 문란해지고 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 한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은 어는새 '탈갱이'가 되어 머리고, 자치권을 수호하겠다고 나선 학생들은 '탈론아'가 된다. 공부에 취미가 없거나 밤늦게 다니는 중고생들은 '불량 학생'이 되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가정을 꾸려 나가는 소녀가장은 연민과 더불어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은 범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 되고 만다. 그래서 안기부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권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은 청소년들을 규제하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가 논의하고 있으며, 신체 노출을 규제하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성교육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다. 무더운 여름 방학 동안 전경들은 수천명의 학우들을 잡아갔고, 그 와중에서 수많은 여학생들은 성추행을 당했다. "탈갱이녀들에게 성추행이라는 말은 사치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 문제를 언급했다가 '품위 없는' 의원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삶은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 우리의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는 '성적인 부분'도 감시 받고 있다. 가부장제의 논리에 의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 논리들은 우리의 일상 속까지 침투하고 있다. 우리의 육체는 일사이라는 공간 속에서 관리되고 통제되고 규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저항의 공간은 바로 우리의 일상 그 자체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일상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두 같은 삶의 방식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길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은 곧바로 비정상적인 삶, 또는 퇴폐적 삶이라는 도덕적 재단으로 규제된다. 여성으로서의 삶 - 결혼과 양육의 삶, 남성으로서의 삶 - 가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 그 동일한 일상이 사실상 우리를 얼마나 옥아매고 있는가. 다른 삶에 대한 막연한 꿈은 있지만, 그것은 지배적임 삶의 방법 속에서 꿈으로만 남아 있다.

[일상/자치/저항문화 기획단]은 바로 이러한 '일상'에 대한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여성이라는 존재는 항상 사적인 것,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포섭되어져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그렇기에 여성 운동이란, 본질적으로 일상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자신의 일상적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불만들을 털어 놓음으로써, 그리고 가부장

제 사회에서 파편화된 채 '외로운' 존재들 사이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여성 운동은 이루어진다. 일상과 괴리된 대사회적 투쟁은 결국 변혁의 힘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삶과 일상 속에 그냥 묻혀버릴 수도 없다. 여성 운동이란, 자신의 삶이 정치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시작되고, 그 깨달음 자체가 중요한 실천이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 이분법을 뛰어 넘는 것이다.

현재 총여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여학생회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학내 여학생 운동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현재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은, 총여 후보가 나오지 않은 이유, 그리고 현재 총여학생회가 봉착되어 있는 한계점들을 뛰어 넘고 여학생 운동 내지는 여성 운동의 새로운 시작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여태까지의 운동의 성과에 찬물 끼얹는 것이 아니라(실제로 성과들은 막대함으로), 현재 시점에서 여성 운동에 대한 재사고와 새로운 형태의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자치/저항문화]기획단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와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문화제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실험적인 운동의 방법으로 기획한 것이다. 즉, 현재의 총여학생회라는 기구는 하나의 상위체에 봉고하고 겹칠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회는 있으나 학생들은 없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학우들 자신의 목소리이며 학우들 자신의 삶에 기반해 있는 움직임들이다. 이번 문화적 행사들을 통해 기획단은 일상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해 여성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타진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또 하나의 행사에서 끝나면 안될 것이다. 총여학생회라는 상위체에 의존하지 않은 작은 움직임들이 활성화되고 힘이 되거 억압적인 '일상'을 헤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일상/자치/저항문화]는 하나의 실험에 불과하다.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 학생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점점 더 우리들의 내부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을 때, 학우들의 자발적인 작은 움직임들, 학내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을까. 여성학이나 성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확보에서부터, 한 달에 한번씩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리대 자판기 설치까지, 학내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가부장제의 탄도까지도 우리가 스스로가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누구인가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이제는 권위적인 학생회를 뛰어넘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가야 한다.

너의 일상에 침을 뱉어라!

일상과 불만 - 현대의 일상

우리는 지긋지긋한 일상에 대해 읊조린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영원히 그 굴레로부터 헤어날수 없을것만 같은.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일상이 되풀이된다. 마치 새장속의 새처럼 우리 최소한의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인다. 움직이고 소리치고 때론 미친듯이 울어대며, 하...철창사이로 쏘개지며 웅크린 우리들의 그림자를 알아대는 태양. 우리에게 남겨진 탈출구는 없다!!! 일정한 시간표, 주기표에 따라 우리의 대강의 삶에는 한정된 테두리가 그어진다. 이 한정된 테두리를 따라 개별적으로 할당된 일상의 경계가 들어서고, 그경계의 지대에 묶인채 어느새 우리의 삶 자체는 유효기간이 명시된 생상품들을 달아간다.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시/공간을 분할하는 시선은, 슈퍼마켓의 진열대에서처럼 제조된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인 상/물품들을 목록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에 따라 실용성을 기준으로 마구 살아물리고, 배열하며 그 배열의 질서를 각 물건의 등급에 새기는 바로 그 시선이다.

우리는 이 시선이 부여하는 규율에 따라, 목록표가 지정하는 장소에 할당된 상을 살아간다. 사물의 질서를 축적과 소유의 질서로 환원하는 목록표에서 분할되는 시/공간의 상이한 위치에서 우리의 일상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대량생산되며 소비를 통해 호출된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품이 출하되듯이 그렇게 매일매일의 일상이 규격에 맞춰 반복적으로 찍혀나오고, 일상의 시간은 생상품의 유효시간이 갖는 바로 그의미에 따라 매일 매일의 유효성과 시간의 파국을 맞는다. 그리고 그것은 죽기전에 소비된다. 소비는 선형적 시간의 축에 따라 분할되고 파편화된 사물의 조각난 시간성을 화려한 상품진열대위의 고정되고 불멸하는 시간속으로 옮겨놓는다. 개별화된 매일의 일상은 반복적으로 다르게 재생되고, 또 다시 시작된 일상의 삶은 실체가 아닌 이미지로, 드라마로, 스펙타클한 광고의 기호로 소비된다. 표류하는 일상의 시니피앙은, 그 무표정함과 무의미함은 유일하게 소비속에서 동일한 기호로 고정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소비의 순환적 시간을 가로지르며, 생산의 직선적이고 기계적인 시간이 일상을 그물처럼 뒤덮는다. 우리에게 생산과 소비의

법칙 바깥은 없다. 이 거부할 수 없는 동일한 원칙속에서 매일매일의 숙명적인 시간 표가 짜여진다. 그리고 그것은 순환한다. 하루에서 한달로, 올해에서 다음해로, 한 생의 마감에서 다음생의 마감으로. 한 시대의 유산이 고스란히 반복되는 다른 시대의 분열속으로... 그리고 다시 한 개체의 일상으로 회귀하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생산의 규준에 할당된 육체의 과정을 개인적 생의 주기위로, 자본주의의 역사와 일상이라는 전체적 시간위로 삼투시킨다. 심리학, 사회학, 생물학등의 근대과학은 육체의 과정에 대한 자본주의적 분할(생산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분할)을 마치 그것이 필연적인 것인양,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법칙인양 자연화시킨다. 벗어날 수 없는 상품 및 교환의 질서와 시대의 진리를 관리하는 달론의 규율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육체는 컨베이어벨트의 자동화라인을 무의지적으로 따라간다.

자, 일상에 지친 당신은 탈출을 꿈꾸는가?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은 당신의 일상에 돌을 던지고 싶은가? 어떻게? 무엇에 대고? 당신의 손에는 주사위가 쥐어져 있고, 그것은 영원 재귀하는 당신의 일상에 던지는 마지막 변화의 희망이다. 당신이 일상을 동지하고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희망은 바로 일상 자체에 불박힐 것이다. 그것은 일상의 벙글에서 부여잡는 위태위태한 삶이지만, 더할 나위 없는 활기와 쾌락이 있을 것이다. 일상일대에 던지는 최대의 변화의 모형은 항상 당신의 일상을 둘러싼 채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생리는 당신의 도박을 어떻게든 소비의 현혹적인 문법으로, 상품광고의 달콤한 헛바닥으로 삼켜버리려 들 것이다. 당신은 이 현란한 유혹을 견딜 자신 있는가? 있다면 일단 주사위를 던져라. 탈출구 없는 당신의 일상에 출구는 항상 비스듬히 빗겨 있다. 방법을 모른다고? 방법과 형식은 당신 자신이 만든다. 자, 당신의 상상력을 무기로 그 비상구를 향해 도약하라! 아니면 일상에서 살짝 빗겨나 있는 출구를 지금....

여기로 끌어내리라!

절망에서 적대로....

아침을 맞다는 것은, 1996년의 어느 날 그것과 대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잔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아침에 자명종을 부딪고, 또 분만 더, 또 분만 더 집이지만, 그렇게 일상이 기각되지는 않는다. 버스 안에서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으며, 조금만 더 서둘러야 하니까 유괴할 뿐이다. 아침은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시작일 뿐이다. 또한 그렇게 절망의 종말일 뿐이다. 아침의 족족한 햇빛은 여담 속에 숨어 있던 희망의 공간들을 녹여 버리고, 우리는 자신을 그 빛에 드러내기가 부끄럽기라도 한 듯 그들 빙글에서 흘리는 그들 정보에 얼굴을 묻는다.

커피라는 마취제라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 미쳐 버릴 것이다.

아침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일상 속을 미친 척이라도 해서 견뎌 낼 수 있게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커피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습관은 아침마다 회사, 또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커피 자판기 앞에 몸을 세우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라는 시간은 수많은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무수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혼자이다. 하루종일 '나' 하고만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수많은 농담과 농담들은 결코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하루종일 '나' 하고만 이야기하고 나면, 결국엔 '내'가 지겨워지고, 무엇이든 게워내어야 할 것같은 역겨움을 느끼는 것이다.

일상 속의 자신의 모습은 항상 나쁜하고, 나태할 뿐이지만 또 그렇게 도덕적인 자학의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일 뿐이다. 사실 이 나쁜함, 나태함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상과, 그 안의 절망들을 다 견뎌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일상을, 그 안의 절망들을 회피하기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하라.' 이것은 이 시대 가장 권고할 만한 덕목이다.

혁명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적대단 총체적이고, 단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가두라는 단일한 공간을 공유한 단일한 방식의 전면적인 투쟁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총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좀더 조밀해진 지배의 그물망 속으로 수십만을 시청 앞으로 집결시키던 그 거대한 적대는 실연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현대는 바야흐로 혁명의 시대 아닌 절망의 시대인 듯 하다. 우리(여기에서 나는 갈히 우리라는 말을 쓰겠다.)는 무형의 허무와 절망 속에서 끝도 없이 방황하고 좌절한다.

언제부터인가 여행은 우리가 여가를 보내는 가장 낭만적인, 그렇게 맛있는 방법이 되었고, 최고 용경의 대상이 되었다. 유럽으로 떠나는 배낭여행족들의 풍경은 한국 사회 총총한 일상의 그 문명을 잠시라도 벗어나려는 원형의 성지순례일 뿐이다. 그것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한 일상과의 시한부 계약인 것이다. 여행은 절망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형으로부터의 분출구에 불과하다. 그것은 밝은 창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출구는 일상이라는 구조물의 일부일 뿐이다. 여행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절망을 연약하게 만든다. 해변으로 휴가를 떠난 셀러리맨과 그의 가족들은 가을과 봄, 겨울 동안 살아 왔던 절망들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대대 반복되는 절망이 형식들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된다.

결국 현대 세계,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결코 절망의 최고 극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를 떠나라.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배격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일상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적절히 분리할 뿐이기 때문이다.

책쓰는, 우리와 우리의 절망을 가루마는 일상의 한 형식이다. 그것은 도덕주의자들이 그토록 분리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배 권력에 의해 적절히 억압되거나, 또는 적

절망 허탈되었다. 성해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의 외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똑같이 우리는 지배 전략에 관해, 그리고 일상에 관해 말하는 것에 지치지 않는다.

리얼리즘 문학의 자리에 도덕 소설이 들어앉았다고 비판하는 도덕주의자나, 프로노와 페락을 말하며 그것의 본능과 그것의 해방을 말하는 자유주의자 모두, 일상과 그것의 유지 전략인 일탈에 일조할 뿐이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섹스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권력을 강요하는 것은 일상의 형식이고, 그것의 억제된 본능을 해방시키자는 것은 일탈(이것은 분명히 일상의 일부일 뿐이다.)의 형식이다. 이 둘은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여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 주며(이것은 일상의 문이다.), 또한 적망을 망각하게도 한다.(이것은 일탈의 문이다.) 그러나 일탈의 형식으로는 절망은 지양되지 않으며, 그것을 오히려 더욱 고착화할 뿐이다.

다시 한 번, '절망하라.' 그것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끝도 없이 밀어붙여라.

오히려 이제는 절망할 때이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침식해 오던 일상이 절망들을 아제는 한꺼번에 터뜨려 그것을 최정점에 위치시켜야 한다. 우리의 절망을 희석시켜 오던 모든 일탈의 형식들을 거부하고, 일상 속으로 끝없이 침잠하여 절망의 정제된 형태와 맞서라. 이제 모든 기만적 분출구는 봉쇄되고, 우리는 일상 속에 그리고 절망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놓이게 된다. 이제 절망은, 우리가 그 앞에 감춤 없이 놓여진 것처럼, 그도 좀더 두렵게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 그 두렵해진 절망들이란 너무도 다양하고, 다층적인 형태일 것이다.

기난한 노동자계급의 자식으로 태어난 경제적인 절망.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와 맞서야 하는 여성의 절망.

이성애자 사회를 사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소수자로서의 절망.

저학력자로서의 절망, 장애인으로서의 절망.

배타적 민족사회와 맞서야 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절망.

내성적인 자들과 그립도 절망, 술 먹지 않은 세입자의 절망.

전반적 여자를 여는 것들에 대한 절망.

군대 가기 싫은 군역 미필자로서의 절망.

이외에도 우리 일상의 절망들이란 너무도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도 다양한 절망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니체는 니힐리즘의 끝에서 삶의 긍정을 찾아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허탈대로 거대한 허탈 앞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만일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 버려라. 사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무 데로도 내뿜을 수 없는 절망만으로 조밀히 구성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패각이란 죽음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고 살아가는 것 보다는 이걸 정말이지 확실히 매력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 최고의 미덕은 죽음인가?

감히 선언컨대 1996년의 오늘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또 그렇게 극대화되어 버린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전면적인 혁명의 시간이다.

이제 모든 절망은 적대로 환원되고, 탈정치화되어있어 절망의 언어로써만 설명이 가능하던 일상은 정치화되어 적대를 이야기하게 된다. 절망이 극대화되어 버린 만큼 그 절망의 원인, 모순의 지점들 또한 너무도 명확해졌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전의(戰意)를 추동질당하게 된다. 이제 일상으로부터 일탈의 해방을 통해 우리는 절망을 극대화시켰고, 다시 그 극점에서 우리는 절망을 적대로 환원시킴으로써 혁명의 이념을 일상 속에서 전면화시키게 되었다. 이제 혁명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시 옴모되기 시작했으며, 이의(異意:dissent)의 복수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조직화를 수행해 나가게 시작한다.

공과 사의 이분법 아래에서 사의 영역으로, 또한 그렇게 은밀한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일상은 오늘날 가장 격렬한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곳이 바로 '일상의 정치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절망의 끝에 와 있다. 감히 그와 맞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도 최후를 맞이할 때가 왔다. 일상 속에 숨어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던 수많은 지배와 훈육의 권력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일상에 밀어 넣던 절망들도 이제는 위장의 가면을 서서히 벗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이 총체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의 모든 지배의 구조와 방식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모든 투쟁을 시작해야 함을 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운동은 재구성된다.

가장 은밀해서 가장 이야기하기 꺼려했던 모든 것들을 폭로하라. 우리의 일상을 공과 사로 경계 지워 우리를 규정짓던 모든 힘들을 거부하라.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또한 그것과 대치하기 위해 억제되어 왔던 모든 절망들을 언어화시켜라.

이제 정치란 공적인 영역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슴 벅찬 것이 아니다. 가장 개인적이어서 가장 소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치의 것이다.

우리의 언어들은 가장 개인적이어서 가장 절망적이었다. 가상의 도덕적 공간에서 각성과 인식을 요구하는, 또한 그런 방식으로 소통 행위의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우리의 '말함'을 모두 흡입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분쇄되어야 한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란 너무도 다층적인 것이다. 다층화된, 분자화된 개인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하라. 일상은 이제 우리 투쟁의 공간이다.

82년의 자화

중앙동아리 우리역사회 여성학 소모임 '친구끼리'

친구끼리는 1995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포진한 여성의 문제를 읽어내고 여성학이라는 학문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삶의 기반으로서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 타자화, 대상화시켜내는 남녀 불평등한 구조의 사회에 대해 저항해내고, 그 작은 실천으로 동아리내의 남녀 불평등한 질서를 극복할 대안적 사고의 틀과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5년 세미나 자료집 발간

1996년 세미나 중.

네개의 테마 가족, 노동, 성, 미디어와 성으로 나누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 「성, 권력, 정치」 중 제 3장 가부장제와 결혼
-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제 2장 가족은 존재하는가
- 「새로쓰는 사랑이야기」 중 결혼 사랑 그리고 성
-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 「철학과 인식」 무크지 중 여성과 철학
- : 사랑의 신화 어머니와 딸
- 결혼 가정은 과연 결혼 가정인가
- 외도-결혼 제도의 그림자인가
-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1, 2, 3장

여성의 노동

- 「페미니즘 사상」 중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가사노동논쟁
- 「여성학 강의」 노동부분
- 「철학과 인식」 -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
- 가사노동 殘職인가 天職인가
- 「가사노동이론에 관한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sex, gender, sex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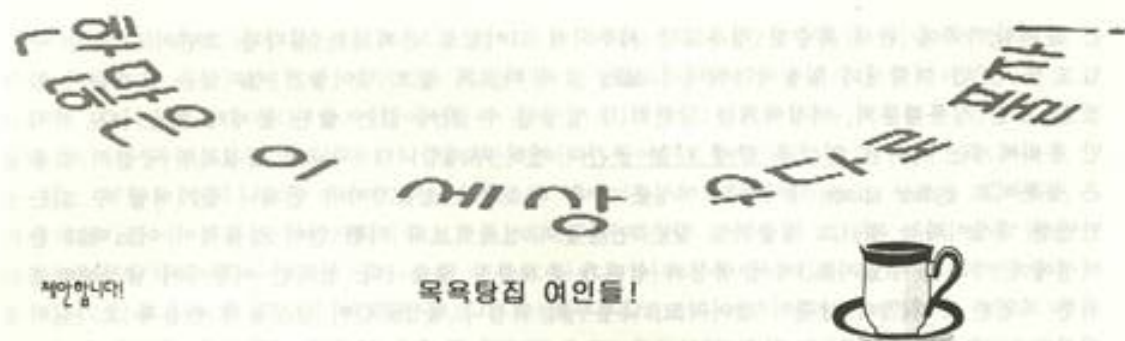
-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 「95년 제 2대학 강좌 자료집」

미디어와 성

- 「철학과 인식」 이미지속의 여성
- 「성, 미디어, 문화」 나남
- 「핀 광고, 돈 광고, 난 광고」 나남

기본 필독서

- 이두 아이론 총서 「페미니즘」
- 「섹스북」
- 「새내기 여성학」
- 「여성학 강의」
- 「페미니즘 사상」
-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제안합니다!

목욕탕집 여인들!

○왕의 고백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다. 수업을 통해 내가 주조와 혼숙의 대상일 뿐임을 느낄때, 죽도록 피기하는 내 열 사람과 악석빠르게 숙제를 내는 내 뒷사람이 미치도록 나를 짓누를 때, 도서관의 많은 인간이 모두 회계와 영어따위를 파고있음을 알 때, 잠깐 스치는 인간들의 모습이 역겨우리 만치 균일해보일 때, 무의식중에 거울을 바라보며 얼굴을 살피고 용대를 비집보다 화들짝 놀랄 때, 신촌 거리로, 백양로를 걸다 화려한 여자들을 훑어보며 괜스리 주눅이 드는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어설피기 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외사스통 고관의 원인을 내 무능력으로 돌려버려야 할 때, 내가 속한 과, 동아리, 모임의 문화라는 것이 남성적임을 어쩔 곳이 느끼게 될 때, 나와는 맞지 않음을 차츰 깨달아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주체적 운동성이 심히 의심스러울 때, 그 논의 남자새끼들과 말이 통하지 않음을 제끼더라도 나의 여자친구들과조차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때, 그녀들의 외로움이 외화되지 않을 때(나 역시 그러하지만), 그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혼자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녀들과 예기 나 늘 어우도 찾지 못할 때,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결정질평한다.

도당길 결심으로 거자에 몸을 싣고 나의 안식처(?) sweet home에 도당길 즈음에 후회가 많심 하게 드는 건 뭘까? 직장인 영마의 눈물겨운 편지 - 사랑하는 딸에게... 우리 딸 오는데 영마가 준비를 잘 못했구나 아침에 보고싶은 마음을 가득히 담아 김밥이라도 딸아 놓았으니 맛있게 먹으렴. 너 좋아하는 경자복음은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먹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된장국... - 늘 미안 해하는 영마. 직장때문에 용당 베풀었어야 할 사랑여의 죄책감으로 남기는 편지는 눈물나게 감동 스럽지만 악견의 짜증을 일으킨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소외된 가사노동과 밥벌이로 가족에 천박 아 버린 그녀의 천정함여, 뜨거운 모성애의 강요까지 받아 들어며 거공의 잔소리로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슬픔과 동시에 나의 서글픈 미래를 보는 듯한 공포를 느낀다. 공부 는 열심히 하고 있겠지 식의 정점은 물음에서 국가고시 하나는 내가 따야 어찌고..아빠의 일장연 설을 새뭉한 돈다 일론 어곳을 떠나야 겠다 몸서리친다. 내가 어려한 곳에서 수동적으로 기계적 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명백하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 자식으로서 여자로서 어떤 논의 섹스 파트너로서 주부로서 노동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속품이 되어버리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상은 어느 동아리, 과방의 날적이 혹은 개인의 일기장, 어느 카페의 한구석에서 어쩌면 협사 리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자대학생으로서 기대되는 평범한 일상'의 기준으로 재단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현실에는 위와 같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들이 산재한데 도 말이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너무나 '일반적이지 못한' 자신의 일상에 절망하게 됩니다. 취업이 힘든 4학년 여학생의 고민, 또 소위 '운동을 하는' 여학생이라면 가부장적 운동권문화에서 느껴지

는 불편함, 가족에 관해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되어 그야말로 은폐되는 심각한 고민이 그득할 수 있고 또 CC인 여학생의 일상에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결코 털어놓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겠죠. 또한 성폭행등의, 여성에게는 당연히(!) 일상일 수 밖에 없는 술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일상을 함께 나눌 공간이 전혀 부재합니다. 학내에 물질적인 공간이 없음을 물론이고 cyber space 내에서도 여성은 작은 목소리의 소유자이며 언제나 묻개버릴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라는 점 (그 짐승과도 같은 전경들의 성폭력보다 더한 언어 성폭력이 어느때고 한 여성에게 가해질 수있지요.)에서 여성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리안 여동에서 남성폐쇄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나우누리 역시나 여성공간이 남성들의 관음과 호기심의 대상임은 언제나 확인할 수 있을 터입니다. 학내 공간의 문제에 있어 논지방이나 여학생 휴게실이 있긴 하지만 정말이지 선택의 역할이상을 못해내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토로하고 모아내는 자리가 결실합니다. "상대 신관연 생리대, 화장지 자판기가 없다네."-복지 문제 해결, "으으으... 열받아. 내가 남자이기만 했어도 그자식 밟아 주는건데"-의수대와 대화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내 남자친구 애긴데.."-고민해결, "그 교수 정말 밥 맛이네. 어떻게 테러를 가해주지"-재밌지만 필요한 타격대, 게릴라 결성, "나의 이 복잡한 방황의 원인들을 사회 구조와 여러 맥락에서 깊이 공부해보고 싶어"-학회만들기, "여자들끼리 놀아보자"-여성 문화만들기, 나의 생각 너의 느낌이 통하는 친구사귀기등 생각만 해도 즐거운 장을 꾸려보는 첫 스타트로....

「악화환경 여자들」-수다 모임을 제안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방황하는 O양들이 자신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 뭔가를 해보자는 자리인 셈이죠. 토의의 형식을 사양합니다. 뜬금없이 딴 얘기를 거침없이 해낼 수 있는 수다의 장을 만들자는 거지요. 여자들끼리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구요. 생각없어보이는 여성들이 많대구요. 원래 여자들은 좀처럼 단결도 안되고 추진력도 부족하지 않나구요. 또한 이러한 모임이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나구요. 남자들을 너무 적대시하는 거 아니나구요. 편협해 보인다고요.글쎄요...무엇보다 이런 '개인적인' 주제를 공적인 자리로까지 끄집어낸다는 것이 생소하고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으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이 과연 어디까지 개인적인 영역일까요.

가우똥 가우똥 고개를 저으시는 분께 잠깐 한가지를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집단으로서의 남성은 여성을 가린채로(무시한채로) 놀상 존재해왔고 그들(남성)의 문화속에 우리(여성)의 문화는 연속되어 주변부화되었습니다. 같이 놀다 당구장에 간다는 남자친구들에게서 느끼는 소외감, 체육대회라 하지만 용원이상 할 수 없는 여학생의 짝꿍함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네요.

즉 여성은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모여 문화와 파워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몇몇여인들의 교묘한 성공을 여성전체의 성공인양 호도하지 마십시오. 간판남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제의 그늘아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를 혼란스러워하는 여성들이 소리없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의 글을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의 첫모임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이 분명한 글로리아양의 「여성망명정부예의 공상」 중의 일부를 연대의 발언으로 인용해보겠습니다.

여성들간의 깊은 교감이 지닌 독특한 점은 모든 종류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나이, 경제적 형편, 세상경험, 인종, 문화등 남성사회 혹은 남녀사회에서라면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이었던 것이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어느 혹은 가정부 모임에서 어느 백인 가정

주부가 나에게 흔히 페미니즘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부르는 '의식고양모임'혹은 '이야기모임'란 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설명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성들의 경우에는 술집이든 클럽이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장소가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집과 가족 내에 고립되어 다른 여성들을 만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모임이 바로 그런 우리만의 자유로운 장소 역할을 한다. 또한 이야기모임은 서로의 이야기를 속직하게 털어놓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매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하다.....페미니즘 혁명은 남성들의 혁명과 거의 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이는 어떤 젊은 남성이 나이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것(즉 아버지-아들의 연계를 끊고 정체성을 분리하거나 기존 권력을 정탈하는 것)과 어떤 여성이 어머니에게 급진적인 행위를 할 때 (여성으로서의 연대를 확인하고 서로를 도와 어떤 힘을 정취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경우이다.

무엇을 일상...

항상은 우리가 사고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치와 경제라는 거대한 주제들과 그것에서 벗어난 보잘 것 없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으로 크게 양분될 것이다. 흔히들 거리(정치)에서 혁명을 외치던 노동자는 집(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집안의 엄격한 아버지가 되어 레비전을 보며, 흔히들 말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일상이라는 것은 정치와는 동떨어진 탈정치화된 영역이고, 사적으로 은폐된 공간으로 사고 될 수 있다. 혁명을 외치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아마 반동을 고집하는 자본가들도 가정으로 으로 그려지기에는 교차되는 지점이 너무 대별되는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오게 되면 나 적다.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며 일상의 너털함을 느낄 지도 모른다.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라는 말로 성, 인증, 계급 등을 막론하고 전체적인 삶의 패턴이 라는 것이 그려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형화된 삶의 유형이다.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기대되어지는 것, 변화불가능한 것,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일상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혹시 생각해 봤는가? 동성애 공포증을 낳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레즈비언의 삶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부장의 삶이란 것들에 대해.... 그것은 하나의 일상으로 그려지기에는 교차되는 지점이 너무 적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구적 정치의 개념 밖으로 우리의 삶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정치화 시켜내는 일일 것이다.

82년의 자력

이름없는 모임 하나

"We had nothing, but..."

1. 여성학 모임, 우연히 불러왔게 된 사람들

정윤희(행정 94) 조지혜(건축 94) 김수연(행정 95) 이영희(행정 95) 피소현(정치 95) 사회와 사람 그 어정쩡한 관계를 늘상 고민하다 한 학기 휴학한 뒤, 뭔가 김새를 포착하고는 점잖게 영석을 깔아버린 노래하는 벼랑이, 이리 구르고 저리 패지며 새로운 거 뭐 없나 두리번거리던 중 끼게 된, 단우지를 혐오하는 씩씩한 공대여성(제3의 성이라는 성적 편견을 감내해야 한다), 사회학의 영역을 호시탐탐 엿보며 맨날 혼자 연애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을 받는, 관상좋은 아가씨. 뭐라고 규정하기도 힘들고 남들이 규정해주길 바라는 것같지도 않지만, 하여간 세미나에서는 빙빙 도는 논쟁을 단칼에 우쭐러주는 우리들의 마돈나. 부럽게도 현재 연애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다른 멤버들과 차별성을 지니지만 가공은 실험대상으로 논의에 오르는 동그란 것... 맨 처음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구였건 지금은 모두 공모자(?)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다른 공공이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런 모임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었다. 지난 7월 숨이 턱턱 막히던 더위 속을 헤집고서 처음 만난 이후로 세미나와 그 안에서의 논쟁, 혹은 수다를 5개월째 계속해 왔다. 가장 기본적인 동의는 여성학을 공부하는 것 하나뿐이었다.

일상 I - 그 균질성과 균열성.

매일 매일 똑같은 삶의 궤적들이 그려질 것이다. 일상이라는 시/공간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기에 그 형태마저 동일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한 사람의 생을 추적해보자.

<그는 전형적인 책가죽 출생할지도 모른다. 또는 그는 유복자로 아니면 고아로 태어나서 살아갈지 모른다. 그가 출생신고를 마치고 1차적 교육기관을 수료한 이후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몸이 불편하여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다. 그가 20여살의 나이가 되면 그는 결혼을 할지도, 결혼에 실패한 후 이혼한 상태일지도,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다양한 삶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단일한 삶이 들어차서 명분, 일반적이라는 수사를 부쳐서 '정상적'이라는 삶은 이것이 라고 공표하려한다. 과연 '일상'이라는 틀 안에서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상적 책가죽에서 출생하여 당연히 학교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취직해서 명분하게 결혼을 해서 보통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미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해야만한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정해져있다.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정상이라는 수식어와 동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레즈비언의 삶이나 임신한 여중생의 일상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치부되어버린다. 그

여성으로 사는 자신의 일상에 있어 진실되게 모습을 느끼는 자와, 자신 내부에 형성되어있어야 할 지식적 실천적 모티브로 여성학을 선택한 자, 혹은 지적 논쟁의 부재를 느껴 그 논쟁에 동참할 친구가 필요했던 자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각자의 목적을 일부 드러내고 일부 아직 묻어둔 채로 만났고 그리고 이쯤까지 온 것이다. 아무려면 어때라...

II. 형식에 관한 몇가지 잡념

"아, 너네 이름 빨리 만들어. 그래야 소개도 쉽지..." 문화제에 대한 의의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획팀은 우리에게 모임의 이름에 대한 언급을 본의아니게 많이 하였다. 우리를 왜 우리의 모임에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싶지 않았겠는가. 특히 처음에 모이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이름들도 오고갔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후로 이름을 빨리 만들자는 말을 꺼낸 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를 규정짓겠다는 욕심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찌감치 저쪽 구석으로 밀어놓은 듯하다.

"너희들 모임의 회장은 도대체 누구야?" 누구였지? 그건 우리도 모른다. 대표자는 없다는 말이다. 주로 그날 논제로 정해져 있는 텍스트를 가장 깊이있게 읽었거나 아니면 가장 할 말이 많거나, 혹은 다 읽고 참석한 사람이 많지 않은 날은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세미나의 메카니즘이 아닌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 어쨌든 회장은 있어야 한다는 동의 말은 우리 사이에서 오고 간 적이 없다. 물론 머리 수가 일반적인 학회나 동아리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발빠르게 뛰어야 하는 사람이 늘 나섰던 것은 쉽게 만나기 힘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애정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모든 권위적 구성체를 부정한다고? 일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 아나키스트라는 오해를 받기는 싫지만,

"얼마만에 한번씩 세미나 하니?" 이걸 말할 수 있겠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론 특정 기간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도 엄연히 존재하고, 그 이상의 더 다양한 일상이 존재한다. 여기서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일상에 대해 문제제기하려 한다. 또한 지배사회의 이상으로 여겨지는 '일상'이라는 것은 권력이 원하는 하나의 조합된 통제가능한 육체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에 의해 '일상'화된 완벽한 육체라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다.

일상 II - 탈정치화

사는 게 다 그렇듯 모두에게 유사한 일상이 존재하게 된다. 매춘부, 종산층 아줌마, 낙태를 한 여대생도... ? 균질하다고 가정되는 일상속에서 우리는 실제 너무나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균질한 일상

속에서 균열된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냄에도, 동일한 일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이라는 애매모호한 말 속에 숨어있는 전략이다. 그들에게 일상이라는 단어를 부여해준 채 그들에게 동일하고 정상된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소시민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라! 우리가 여러분의 일상을 원활히 움직여 줄 정치를 대신 할테니까... 이러한 일상/정치, 공/사의 분할 구도는 그들의 지배와 통제를 언제나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의 문제를 주변화, 개인화시켜버린다. 실제 매춘 여성, 종산층 아줌마, 낙태를 한 여대생의 일상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게 해서 더 이상의 저항을 '일상'이라

III. 조금하지 않게 하나씩 천천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두고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아직 그 세미나 매주 하나? 희한하게도 잘 되는구나... 이런 일종의 신기함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엮어매려고 했던 그 많은 학회들이 바싹겨려 정체성 혹은 지향점이라는 말조차 꺼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모임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일상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비슷한 기대치와 열망을 가지고 모인 우리 내에서는 선배라는 일련의 위계질서를 고려해야 했던 경우도 없었고 어떤 당위성에 얽혀 은근슬쩍 논치를 주는 고학번 선배들이나 학생회같은 주변환경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조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아무것도 가진 바탕이 없었고, 그래서 주위들거나 여기저기 얻어낸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것을 했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저것을 해왔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 다루어야 할 내용도 많이 남아있고 모임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의 커리큘럼이나 모임 내의 장기적인 재생산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실천적 영역에 관한 논의나 다른 모임들과의 연계성의 문제도 따라 나올 것이다. 어쨌든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가능성이나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싶고, 그것을 실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형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차피 아무것도 가진 것없이 시작했으니 앞으로도 조금하지 않게 하나씩, 천천히...

IV. 그동안의 세미나 커리큘럼을 소개함

- [여성학 연구] 최지희, 세종출판사
- [여성해방의 역사] 앙드레 미셀, 백의
-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저, 현실문화연구
- [또 하나의 문화, 다시 쓰는 결혼 이야기] 공저, 또 하나의 문화
-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프리드리히 엥겔스, 아침
-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예문
- [페미니즘 사상] 로즈마리 톰, 한신문화사
- [XY: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엘리자베트 바잉테, 민맥
- [한국의 여성과 남성] 조혜정, 문학과 지성사
- [Sexuality: 성의 정치] 제프리 웨스, 현실문화연구

는 말로 무마하려하려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탈정치화된 일상이다. 일상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달이나 수다일 뿐 그것이 갖는 의미란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의 일상이란, 여성의 일상이란 개별적 개인의 생활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정치란 나오는 먼 이야기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나에게서 나만의 삶이 존재할 뿐이다. 일상은 그렇게 탈정치화되어간다. 일상에 지쳐버린 아줌마이야기를 해볼까?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해도해도 끝이 없는 일, 임신과 낙태의 경험, 자식 키우고 느끼는 공허함, 집안에서 틀어박혀 소외받는 일> 공공롭게도 이것은 한 아줌마만 느꼈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줌마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경험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상 자체가 하나의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유할 수 있다. 우리가 사고하는 '정치'라는 거대 담론은 항상 상부구조로서, 추상화된 형태로서, 지배와 소유의 형태로서 개인의 삶과는 무관하게 펼쳐진 하나의 허구에 불과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구적 정치의 개념 밖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정치화 시켜내는 일일 것이다.

매일 영상 1

날 노리는게 분명해...난 공주병??



오늘도 예외없이 지하철을 탄다. 지겹다. 난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 싫다. 아니 남자가 많은 지하철이 싫다. 뒤에 남자 몇 명이 서있다. 뭔가가 나를 툭툭 찌른다. 순간 발끈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가방이었다. 머쓱해져서 다시 돌아선다. 전장할... 아침마다 이게 뭐람... 아니 아침만이 아니다.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사람이 많은, 아니 남자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고 쓸데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다. 실제로 나에게 성폭력을 가하려고 마음먹은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이들이 나의 의심에 찬 눈초리를 느낄 때면 무척이나 불쾌해 하겠지... 그럼에도 나는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질식해버릴 것만 같은 느낌을 종종 받는다. 내가 유별난 것인가? 어떤 친구는 소수의 정신병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력이라는 것을 매스컴이 도처에서 떠벌이자, 내가 그것을 일상인 것으로 받아들여 쓸데없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는 물론 남자다. 자신은 절대 성폭력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글썽... 그 친구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친구가 생각하는 성폭력의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성폭력의 의미는 다르지 않나 싶다. 아니 다르다기 보다는 범주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 친구가 생각하는 성폭력이라는 것은 흔히 떠올리는 강간만을 의미하는데 비해 내가 생각하는 성폭력은 보다 광범위한 것이다. 단지 성별의 차이로 내 경우와 같이 불안과 모종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폭력이라는 말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작 피해자 자신도 이런 경우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성폭력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난 그러기 싫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은 성폭력 가해자요." 내지는 "당신은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있소." 라고 쫓아다니며 말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성폭력이라는 말에서 배어나오는 성기증상적인 성적 이미지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성폭력들을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 영상 2

"사나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95. 1. XX

어-지긋지긋한 땀땀어.고정어면다나...뱉어먹음.(하긴 고정은 하느님라고 동기 동정어란다. 어델어다,절정)
우리가 무슨 마주타나,어 주운 날 웃은 왜 벗기난말어다.
절정. 쫄병 들어오거만 해봐라.입에 열음음 물려 열음판을 동계할터니.

95. 8. XX

여자가 몹시도 고픈 하루다.지나가면 할머니도 멀친다는 북한 귀순용사의 증언은 땀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비가 구질구질 오는 날이면 왕고정은 주체할수없는 "사나어의 욕정"에 어쩔줄 몰라 하곤 한다.그때 마다 나는 불려가서 삼류 포르노 소설을 쓰곤 한다
.임대 하루전 술 먹고 죽을 강으로 미친 듯이 떠다신 나는 친구놈들의 수작에 넘어가 화양리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다.난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섹스라도 되는 듯 나의 온몸을 그녀에게 쭈셔넣었고,그것은 그야말로 송고한 외식결여 느껴졌다.나의 몸이 어제 진짜 남자의 피가 흐른다.
내가 그리도 생생하게 묘사해 내곤하는 왕고정 접대용 포르노소설은 물론 그날밤의 기억을 토대로 지어진 것이다.하하...외리로 뭉친 나의 친구들에게 무한한 경사를 보내는 바이다.

96. 1. XX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자식때문에 매일 매일 웃음꽃이 필 지경이다.
얼굴도 곱상-하고 속 썹꺼풀이 한바퀴 돌아 제살을 찌를 정도로 길고 피부도 허벌건 것이 영락없이 거집이다.오늘은 우리 내부반에 일명 "생갈"이라는 자식이 두고 온 여인 생갈이 난다며 그날,아니 그날만엔 숙정을 돌리고 생갈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바깥 역은 그 회멸전놈은 금방이라도 울 태생데...흥미진진...어느 호모가 분명한데 어디 양탈을 부리나며 그 번갈아같은 몸을 날려 바지를 벗기기 시작...푸하하...그놈의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나는 알아 버렸다.그의 사어조로 보아 분명 남자 구실 할 놈은 아니란걸.하영은 별 쏘려 기결은 놈이 대한남아의 스타일을 구경다니잔.

96. 8. XX

연대에서 또 학생들이 설친다.배웠다는 것들이 어찌 뱉겨어졌을 하는가 모르겠다.
대치상황..알에는 쇠파어포가 종을 주고 뒤에서는 밀린다고 고정어 썰때면,남 언제나 이성을 잃는다.스스로에게 설거를 느껴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96년 11월 이금남, 하임명과 최두남의 연세대학교 교정을 날라다녔다.
학생들은 무작비로게 전압되었다. 그리고 길러왔다.
그리고 이학생들은 상수행 남했다. '공갈'의 이름으로...

하하...이번판은 우리군의 완전 승리라고 본다.나는 굴어 나자빠져 있는 년놈들을 모자른 수경대신 포승줄로 엮어 담장에 실는 일을 중기는 편이다.언제 부터인지고장들을 중심으로 그년들의 말랑 말랑한 살들을 스쳐 만지거나,움켜쥐기도 하고,때론 군복을 여기저기 지르고 속옷 경사를 하기도 했다.너무도 착한 난 잠시 너무 심한건 아닐까?생각해보기도 했으나 나역시 그 -누구나하고있지만 또한 찌릿한-허가받은 군생활의 보너스를 중점음은 물론이다.
어떤 정신 나간 여학생이 "어건 성주행어여."라고 중얼 대는걸 우연히 들었다.미친년!!"뱉겨어년"들에게 성주행어란 말은 "사치"다!!"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그러게 집어나 영 전혀 천박해 있을 것이지 웬 데모질인지...가끔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획 놀라 하던 일을

명주기도 했으나 고창의 "다 편집 될꺼니까 신경고고 계속하라."는 말에 중점기만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명백히 "범죄"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반발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짓"들은 그러그러하게 일상의 잡질로 굳어져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고, 아무것에도 불의를 느끼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나 명백히 이번 한총련 성추행 사건은 남근 중심적인 사고를 뚫속까지 물들이는 일상적 군대문화-일방적 명령과 무조건적인 복종에 따른 스트레스, 공격적인 사나이로 혼욕, 존재하지도 않는 포르노적 여성의 소비, 등등-의 총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시된 것은 성추행을 당한 여학우들의 진술과 어느 전경이 이대 여성위원회에 찾아와 진술한 것으로 실재로 말해졌던 것들입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정치 위원회 the other

성정치 위원회 the other는 올해 2월에 발족을 했다. the other는 총여학생회와 별도로, 본격적으로 성정치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됐다.

성정치 운동은 몇 가지의 면에서 기존 여성 운동과 다르다. 첫째로, 성정치의 기본 가정은, '여성' 내지는 '남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균질적인 영역이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성'이라고 실체화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것이다. 즉, 성이라는 것은 억압된 에너지라기보다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관계들이다. 인간은 모두 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이 맺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권력 구조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며, 이렇게 구성되는 성은 여러 가지의 모순들을 낳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적 권력 구조는 이성애적 남성중심주의를 그 중심으로 하며, 이와 다른 어떠한 성적 정체성도 주변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으로 밀려난 성적 소수자들은 통제가능한 대상,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규정지어진다. 미인대회라는 것이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진정한 미인은 어깨 각도가 20도이어야 하며, 웃을 때 잇몸이 보이면 안되며, 32-24-32의 체형을 갖추어야 한다(이외에도 여성 육체를 재단하는 수많은 황당한 기준들이 있다). 이러한 육감적인 면 말고도 현모양처적 포부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동성애자'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실상 실제 동성애자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화와 맞물려, 이성애적 남성중심주의는 공적인 영역이자 정치적 경제적인 영역이며, 다른 모든 성적 정체성들은 사적인 공간으로 밀려나면서 탈정치화된다. 이러한 탈정치화 전략의 결과는 성(이것도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과 관련된 정치적인 모순들을 은폐시킨다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공과 사의 이분법을 공고히 한다. 즉, 성적 모순들을 생산해내는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정치 운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치와 비정치가 이분화된 권력구조에 대한 공격이며, 구체적으로는 이 속에서 억압적으로 구성된 지배적인 남성성/여성성에 대한 공격이다.

마지막 영상 3

Anti - M¹ 論

죄를 짓는다는 것,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정당한 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 신성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많다. 내가 범한 죄는 4개월된 아이를 낙태한 것이다. 나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죄인으로 여긴다. 아니 그런 시각들로 난 이미 죄인이 되었다.

악혼을 하고 결혼을 몇 달 앞둔 어떤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여자는 강간을 당한 것이다. 물론 그와 악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이에게... 그리고 임신했다. 그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낙태를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다. 하

이러한 권력 구조에 문제제기를 하는 성정치는 학생회라는 제도가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현재 학생회 제도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이분화, 정치와 비정치(일상적 삶)의 이분화를 그 기본적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other가 여성문제를 주도 고민하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여학생회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위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성정치는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이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과 사의 이분법을 깨는 직접민주주의 형식인 '위원회'가 운동의 형식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성정치 운동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 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 문제는 바로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생회 구조는 국가 권력 구조처럼,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되고 학우들의 일상과 괴리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여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요즘은 여학우들이 단대 학생회자를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것은 드문 일이며, 총학생회장을 하는 여학우는 아마도 기이한 현상으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 구조 자체가 부조조아적 남성중심적인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제는 학생운동이 변해야 한다. 사회적 모순과 억압적 관계는 한 군데에 응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밀리는 것은 오히려 지배권력의 속살에 밀려 들어가는 것이다. 사회적 모순은 사회에 퍼져 있다. 노동 현장에서부터 우리의 사적인 내면까지. 그리고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선이 구축되어야 하며 학생회 체계도 이에 따른 변혁을 거쳐야 한다. 총학생회는 더 이상 학우들을 하나의 투쟁으로 묶고 가는 전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1. 94년 여름을 강타했던 심은하 주연의 TV 납량 시리즈를 제목 M에서 앞에 Anti를 붙여 지은 제목임.

느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고, 주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하느님이 주신 시험을 피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 길렀다. 물론 악한자와는 파혼을 하고 난 후였다.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주 가난한 며느리 K씨는 이번이 다섯 번째 임신이다.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K씨와 그의 식구들은 기뻐했다.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심장이 약한 그에게 의사는 낙태를 권했지만, 생명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그녀는 출산을 결심했다. 위험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나서야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었다.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는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졌다. 나쁜 건강과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없을 정도의 곤란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아이 또한 출산. 네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는 그녀의 건강이 이제 끝에 와있음을 보여주거나 하듯 그의 안색은 생기라곤 하나도 묻어나지 않는 아주 창백한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녀는 다섯 번째 아이를 가졌다. 그녀에게 그녀 자신보다 오히려 네 속의 생명이 더 중요하보다. 하나의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날지나...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반대한다. 생명생명생명생명... 그들은 평화와 민족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리고 제 3세계 난민구호에 대해서는 이(낙태 반대)보다 적극적이었나? 또한 수많은 생명들이 빈약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무능(이것은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이다.) 하면서 여성의 육체에 대한 지배의 방식만은 더욱더 강고하게 하려고 한다. 하느님의 뜻은 세상 일과는 무관하게, 지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행해지는가? 생명의 희생 위에 생명이 존재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흔 일곱 4

어느 한 레즈비언의 일상

그녀들은 지금 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회사에, 학교에 또는 집에 있을런지 모르겠다. 파트너 문제로 고민을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는지, 커밍 아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의 유형으로만 묶여질 수 없듯이 그녀들의 삶에도 정석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남성중심의 이성애 사회를 살아가는 일상이 또 하나의 억압으로 그녀들의 삶에 규정짓는다는 것일 것이다.

흔히 레즈비언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우선 질문 방식의 전환을 통해 약간의 문제제기를 하려한다. 이성애자로 여성(남성)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물론 그녀가 레즈비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여러 과정이 존재하게 된다. 자신을 여성으로서 정체화하게 됨을 느끼고 자신이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강력한 이성애제도에 의해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을 확연히 구분하게 되고 이성애 제도에서 허용된 남녀간의 사랑을 내재화하게 되어 실제 여자임에도 자신은 '남성'이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다고 한다. 남

성이 중심이 되는 당위론적 남녀관계를 통해 애매모호한 여성성/남성성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바로 이성애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관계는 도덕적으로 나쁘고, 의학적으로 병들어 있고, 심리학적으론 외국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어디에도 그녀들의 생활은 하나의 '살아감'의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 관찰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아니면 수직적 남녀간의 자연스런 성관계만을 절대화한 채, '누구와 잠자리에 드는가'의 문제로 그녀는 성적행위와 욕망으로 표현되는 '성적 존재'로서만 표상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여성성을 거부한 채 남성이고자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남성과의 성적인 경험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타자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정체성중에 하나였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왔다. 실제 일부일처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성관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법률적 혼인 제도에 의해 이성애적 관계의 방식만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성애 중심주의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를 통한 제도화, 구조화되며 궁극적으로 법률에 의해 한정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가족이 형성된다. 자본주의 사회내에서 가족제도의 사회적 가치란 아이를 만드는 재생산적 가치보다는 돈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가치에 의해 측정되고, 이러한 성별 노동분업은 일/성, 공/사, 사회/가족, 공장에서의 일/가정에서의 일, 생산/재생산을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로 이분화시켜왔다. 이렇게 성차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는 남성은 사회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 반면 여성은 출산과 관련하여 수동적이고 하부적인 역할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게 된다. '공격적 남성'과 '수동적 여성'의 결합만을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레즈비언은 남성과의 모든 관계를 절단한 채 나쁜 사회적, 성적, 정서적 경험을 만들어가려는 존재 이기에 그녀는 가부장사회의 위협이되는 존재이다. 가부장제가 이성애 중심주의는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것,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을 허용하려하지 않는다.

그녀가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녀와의 성적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녀와의 성적, 감정적 경험을 가로막는 이성애주의와 여성을 가치절하시키고 폄하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사회에 대한 분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는 그녀를 둘러싼 여성이 놓인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 ♀

매일 일상

'하루라도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문을 늦게 열었다고 맞기 시작했어요. 무엇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는데 늦게 나오나고... 나는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했구요. 며칠 뒤 나는 벨이 울리자마자 문을 열러 나갔어요. 어떤 놀이방 사귀길래 반갑게 나오나고, 너 같은 년은 맞아서 배워야한다고. 내가 옳은 게 무엇지 가르쳐주겠다고.. 그 후로는 매일 밤을 맞기 시작했어요.

'하루라도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오히려 구탄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녀에게는 이제 '폭력'은 하나의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그녀는 이러한 위협적 일상을 벗어나려다가 구탄 남편을 살해하게 되었고, '이러다 내가 죽게 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라는 말을 하게 된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의 폭력과 가정 폭력은 그와 다른 맥을 갖게 된다. 즉, 우리가 만일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시선으로 가정 폭력을 다루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문제, 여성으로서의 특수한 삶의 맥락, 가부장적 권위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놓치게 된다.

가족은 가(부)장 - 어머니 - 자식으로 구성되는 피라미드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수직적 질서 속에서 각 육체에 매겨진 권위와 지배 그리고 복종의 역할들이 정해

져 있다. 즉 아버지는 명령을 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가 가정폭력이라는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회에서 주어진 가부장적 권위로 '바르게 가르친다' 라는 훈육을 목적으로 아내와 자식에게 폭력이 자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이것은 적자생존의 경쟁적 사회와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가족의 본질은 희석화 되게 된다. 또한 가정이 사적인 공간이라는 가정하에 일반적 폭력과 다르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흔히 말해 '내가 내 마누라를 가르친다는데', '부부싸움에 왜 끼어드느냐.' 정도로 심각하지 않게 여겨진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망상을 지닌 사회에서 가부장적 지배질서에서 생성된 전형적인 가정을 사회의 한 묶음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남편의 아내 폭력은 남성 우월적 기반한 가부장적 권력의 한 형태이며,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의 결과이다. 즉, 가부장적 사회체제와 가족체제가 남성 개인을 통해 여성에게 행하는 극한의 폭력이 가정폭력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혼해버리면 되잖아', '도망나오면 되잖아' 라는 말로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부장 사회는 언제나 남성에게

모든 우위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구탄에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라며 폭력을 일상화하게 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막상 용기를 내어 집을 나오게 되더라도 그녀는 생계, 취업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즉 가장(남성) 중심의 노동의 세계에서는 그녀는 '산업예비군'으로서의 하찮게 평가가 될 뿐이다. 그리고 힘들게 일자리를 얻더라도 그녀가 받는 임금이라는 것은 남성의 1/2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들에게는 당장의 온신초조차 주어져 있지 않다. 그녀는 힘들게 찾은 '쉼터'라는 공간에서 여러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이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머무르는 아내의 문제, 더 나아가서 여성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어쩌면 '매 맞는 일상으로 상징되는 구탄당한 아내'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일상일지도 모른다.



매일 영상 6

(경악스러운 어조로) 너가 임신을? (임신한 여중생의 일상)

"모든 사람은 운명을 겪어 버리고 참소를 더하지 말라 응변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모든 사람이 '성관세사라'." (제 12 : 3)

나는 감시 받고 있다. 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공간 사이로 수많은 몸들이 있어 그 안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면 그만 너무 부끄러워서, 그 눈길이 느껴지는 나의 피부를 도려내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 끈적거리는 시선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수많은 시선들은 나를 그들의 방식으로 규정한다. 화냥년, 철부지, 이 시대 타락한 성문화의 가엾은 피해자, 우왕좌왕(당황하는 소리) 똥똥.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보여 준 이름은 그리 나를 유쾌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수많은 으스스한 위협들이 내 눈앞에서 나를 정제 모를 우형의 수치심으로 몰아넣는다. 나는 참회한다. 그리고 나는 모두에게 관용을 청해야만 한다.

"이것은 물론 나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것에게도 제발 뭐라고 말해 줘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들은 감음(感泣)한다. 그들은 분노하고, 정화의 의지를 다진다.

"이렇게 될 때까지 너를 내버려 둔 우리 어른들의 잘못 또한 크다. 흐흐흐."

그러나 내가 그렇게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허름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두에게 보여진다. 그들은 나의 얼굴을 보고, 눈을 가리고, 다시 그 손가락 사이로 나에게 욕지거리라도 몇 마디 한다.

내가 요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거 봐라.'였다. 그리고 내가 요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이 한 말은 '자비롭... 자비롭... 자비롭... (운다.)?'였다. 하여튼 나는 요 며칠만에 스타가 되었다. 영웅이 사라진 시대에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스타라는데, 그렇다면 나는 영웅의 다른 이름인가? 영웅한 공상이다. 하여튼 요 며칠 간 나는 어른들을 분발시켰고, 그들은 지금 나와 같은 이 시대 타락한 성문화의 희생자를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며 온갖 기괴한 규제들을 행한다. 그들은 청소년이라면 어려이려해야 한다는 행동·윤리 규범을 정하고, 그곳에서 벗어난 나 같은 애들에게 도덕적 이단자의 딱지를 붙이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도덕적인 분발을 요구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근엄하다.

82년 8월

중앙 동아리 '씨알' 내 성정치 소모임

중앙 동아리 '씨알' 내에서 소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정치 소모임은 1996년 5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모임 member는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으나 '92부터 '96까지 보통 6명으로 진행되었고, 세미나 당시에 있던 씨알멤버들이 guest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모임은 현재까지 11번의 세미나와 1번의 페미니즘 영화보기(301·302)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모임을 계획한 동기는, 1학기 초에 여성학 주제 '96 세미나가 두 번 있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고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른 듯한 아쉬움이 남아 성정치 소모임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논의하고 진전시켜 나가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커리도 그에 맞춰 '또 하나의 문화' < 새로 쓰는 성 이야기>, <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및 그와 비슷한 종류의 글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세미나 내용으로는, 성·사랑·결혼의 연계성과 이중 규범, 그리고 성·사랑·결혼의 문화적 각본, 결혼, 동거, 독신, 동성애 등에 관해 실제 자신의 경험과 실례를 들어 얘기하거나 소설 속에서, 동화 속에서, 혹은 대중 가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할지를 얘기해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6번의 세미나를 통해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략적으로 설정해 본 다음에, 보다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푸코의 저서들을 공부해 보기로 하고, '푸코의 자리 매김'과 이론서를 읽기 전 준비 단계로 교양 세미나적 성격을 가지고 <철학과 글썽 청소년부>를 가지고 4번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섹슈얼리티/성의 정치>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다 충분한 준비와 이해를 위해 푸코의 저서들은 겨울 방학으로 미뤘습니다. 2주 후면 <섹슈얼리티/성의 정치>를 마치고, 기말 고사 전까지 '가족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2,3번의 세미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 때부터 '푸코 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교내 <성정치 문화제>를 계기로 '성정치'란 용어를 접해오고 있고, 어느덧 벌써 6개월째 성정치 소모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정치가 무엇인가?'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문화가 무엇인가?'는 질문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정치에 대한 궁금증은 끊어질 않습니다. 저는 막연하게나마 성정치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소모임을 하는 씨알멤버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비단 씨알이라는 한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the other'를 비롯한 많은 단대 학회나, 타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각기 고립되지 않고 어떠한 연결 고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 글을 맺습니다.

*에이즈, 미혼, 낙태, 미혼모의 증가와 성범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한 신음소

를 외면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적 폭력과 탄압으로 미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꾀계를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혼절할 것 같은 몸을 추슬러 그를 노려본다. 그리고 그냥 규범화된 길을 걷지 못하는 내가 미워질 뿐이다.

매춘 여성 1

걱정적인 성의 배출구, 걸레 같은 매춘부의 육체

매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폭행이 그 모양이니 성폭행을 당해도 싸지/ 아니, 매춘부에게는 성폭행이라는 말도 과분하다. 그녀들에게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얻어진 알량한 '시민적' 인격도 존재치 않는다. 그녀는 왕적인 존재일 뿐이다.

매춘은 합법화와 비합법화의 틈을 뛰어넘어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와 매춘 여성을 어떻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만 남게 될 것이다. 성이라는 것은 도덕주의자들의 말처럼 부부간의 건전한 성과 그 외의 추악한 성이 존재하게 될 뿐이다. 이러한 이분법 속에서 매춘 여성은 쓰레기 같은 추잡한 성을 담당하며 악의 꽃이 될 뿐이다. 그녀들은 공물대는 성욕과 본연의 색기로 순진한 웃남성을 홀려대기에 여념이 없다. 도덕주의자와 그들과 공모하는 일꾼들에 의하면 모든 성관계는 사랑가에서 이루어지고, 그녀의 육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병과 악의 소굴이 된다. 그녀는 성병과 에이즈를 옮겨대는 병원체가 아니면 성욕의 화신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묘한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매춘은 이 사회의 필요악일 수도 있다. 왜냐면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의 소유자인 남성은 그의 본능을 풀어야 할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잠시 이성을 잃은 남성들이 다수의 순결한 여성의 육체를 더럽힐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로 그들은 언제나 매춘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을 고집한다. 그래도 여전히 매춘 여성은 걸레같은 여자가 될 뿐이다. 여기서 순결한/더럽혀진 여성의 이분법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쓰레기 같은 매춘부가 되든지, 온실 속에 고결한 성녀가 되든지...

가부장제 하의 여성은 이러한 선택적 강요 속에서 스스로가 매춘 여성이 되거나, 매춘 여성을 질시하고 경멸할 뿐이다. 온갖 추악한 성관계의 굴레를 매춘부가 짊어진 채... 가부장제라는 무형의 괴물속에서 자행되는 남성들의 매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말하라! 이 사회 자체가 매춘굴이라고...

학제 6기

사회복지학과 학회 - 다사람 (다함께 사는 보람)

역사 - 1992년도에 '여성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몇몇 91, 92 학년 여자 선배들이 일종의 STUDY GROUP으로 모임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번씩 세미나를 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93년도에 정식 학회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여성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 토론 위주의 세미나가 주를 이루었다.

설립배경 - '여성'으로서 감당하여야 하는 불합리와 왜곡된 인식을 우선적으로 지각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여성 자신의 몫임을 느끼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교환을 이룸으로써 여성학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취지 - 94년도까지는 이런 배경에서 그 회원이 거의가 여성이었는데, 95년 이후로 뜻있는 남성회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계기로 여성학에 대한 여성과 남성간에 보다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이를 통해 현실적인 한계점을 인식한 다든지 아니면 보다 희망적인 의식을 갖게 됨으로서 여성학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 취지 또한 'Feminism'에서 벗어나 성에 대한 근본과 사회의 변동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짚어봄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모순점을 인식하고 '성'에 대한 보다 정리된 시각을 찾아가는 것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취지로 여기고 있다.

활동 - 92년 이후로 줄곧 소규모의 학술회로로서 특별한 대외적 활동 없이 여성학에 대한 단편적인 소재부터 구체적인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부를 해왔다.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데 주로 그 내용은 교재에 대한 발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주를 이룬다.

96년도에 이루어져온 다사람의 활동을 정리하자면,

4월 <남성과 여성에 관한 콤플렉스>에 관한 토론

5월 영화 <파니핑크>감상

<마스크에 나타난 성차별> 영상자료 분석 등...

5-6월 <한국의 여성과 남성>

8월 여름합숙 <성평등의 사회학>

9월 낙태논란, 단편소설

10-11월 <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와 같다.

여러번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항상 일정하다. 여성이건 남성이건간에 우리는 현재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의식을 차차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라 하겠다. 이런 시점에서 '일상/자치/저항문화 기획단'에서 개최하는 요번 문화제가 이를 위한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기획

질병과 육체

질병의 일상, 일상의 질병

질병은 현대에 들어 질병을 관리하는 의학적 시선속에서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병원속으로 흘러들게 된다. 질병을 육체에 새기고있는 환자는 병원바깥에서 사람들의 일상속으로 표류하는게 금기시된다. 일상인에게는 환자들이 일상을 확보한다는 것이 낯선 혼란감을 줄 것이기에, 국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환자와 의사는 병원에, 보통사람들(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 가정, 여가를 위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의 것이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본적 있는가? 바로 당신이 자명하게 믿고 있는 그 신념이 비정상인, 혹은 병자라는 육체적 단위를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이 단위들을 병원이나 감옥에 감금할수있는 권한을 쥐고있다는 것을?

문제는 질병을 일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려는 그 시선속에 있다. 그 시선은 일상을 살아가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며, 그들의 위치를 정상적인 일상에 둘지, 비정상인에게 할당되는 격리, 혼탁기관에 둘지를 결정한다. 또한 그 시선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합리적으로 대항한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그 시선의 구분법은 언제, 어디서 당신에게 충구를 들려대며, 당신을 일상바깥으로 밀어 넣지 모른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라. 당신은 정상인으로서 주어진 적정한 일상의 테두리를 넘지만 않으면 된다. 당신에게는 그러나 꼭 막힌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감있는 술자리에서 미친척하면서 발산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펼쳐진다. 때문에, 당신은 일상의 테두리를 넘는다는게 얼마나 우매한지조차 알고 있다. 만일 당신이 남자라면 아예 당신의 일상은 안중에도 없는 척하고, 술자리에서의 적당한 공기예다가 호탕한 남성적 로맨스를 양념으로 버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건강성과 정상성을 마구 과시하며... 그러면서 당신이 극구 회피하며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상이 있는데, 그것은 질병의 일상이다. 여기서 질병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질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비정상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격모두가 당신에게는 질병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당신은 생물학적이거나 사회적인 질병 모두를 제거해야하는 도덕적, 위생학적 대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당신은 부르조아이거나, 이성애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열렬한 가부장제의 수호자, 인종우월주의자, 종교근본주의자, 이도저도 아닌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거나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끄러울것없는 싸나이를 자처하는 사람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대에 들어 질병은 육체를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중에 하나가 되었다. 만일 당신이 병원에 가본적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고있던 '누구'에서 단순히 한 질병의 현상으로 환원되어버리는 기묘한 체험을 했을 것이다. 질병은 단순히 한번 아프고 마는것이 아니라, 육체를

의학적시선의 권력속에서 특정하게 규정하는 특권적인 분류표가 된것이다. 이제 근대적 육체는 생체를 도표화하는 질병의 분류표와 주기표를 통해서 숙명적인 정상과 병리의 정체성을 할당받게 된다. 이는 근대과학화된 속에서 확장되어온 질병의 위치가 근대적 육체에 특수하게 공간화되는 방식을 특징짓는다. 이렇게 질병의 분류표에 귀속된 육체는 그의 평상시의 일상을 무겁게 내리누르면 생산의 기능들로부터 배제된다. 질병이 무거울수록 그는

한창 열을 올리는 자본주의 생산라인 바깥으로 더 멀리 떨어져 가야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죽음'이나 하버마스의 '상징적행위'에 나온 병환자라는 물리적 한계선 속이나, 이와 상관없이 다른 맥락에서, 그것은 자본주의적 시간과 질서 바깥으로 밀려남을 의미한다. 2. 자본주의적 생산의 할당성(생산관계의 착취적성격을 은연중간에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과 다량화된 자원의 자원을 통해 합리화시킨 사회적관계 바깥으로 격리되어온 질병의 재규격화라는 것이다. 달리말해, 질병은 특정한 사회적 자의적응이라는 단일한 맥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관계와 삶의 명목 바깥 그 자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 합리적인 삶에서의 적응을 성취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다. '질병'이 공중보건이나 역학적, 또는 질병예방에 벗어나고 싶으냐는 자의적응에 대해 묻지 않게 한다.)

이 거부할수 없는 질병의 분류표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에 할당된 상이한 육체의 일상이 다르게 펼쳐진다. 그리고 그 다른 일상은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삶의 온갖 무게를 짊어지고, 지배적인 사회질서 바깥으로 배제, 격리된다. 단지 착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질서에 어긋나는 삶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질병을 축출하듯이, 그 삶을 삶의 공간바깥으로 배제하는 포괄적인 정상/비정상이라는 분류의 그물망이 일상을 무겁게 내리 누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질병은 지배적인 육체와 정상적인 일상이라는 (정상의 부르

조아 이성애 남성만을 위한 한정된 삶을 유일한 삶으로 긍정하고, 보장, 강화하기위한 건강성의 신화를 수반하는 그런 일상) 자본주의 법칙에 할당된 삶을 육성, 확장하기위해 여러 사회적수준에서 끝없이 은유화된다.

그것은 파시즘정치를 특징짓는, 정치적 관계가 심미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바로 그 과정을 질병의 은유에 투사하는 것이다. 이제 비정상인에게는 병적이다라는 규정일에 온갖 심미적인 표상(후하다, 더럽다, 역겹다, 천하다 등의 이데올로기적 반응)이 둘러 붙는다. 그 심미적인 질병의 은유는 사회적인 특정한 인격들에게 의인화되면서, 사회에서 단자로 간주되는 세력들을 '역겨운' 질병으로 환원시킨다. 그것은 위생학적 청결과, 도덕적 정결이라는 대의를 통해서 부추겨진 질병의 공포를 이용해 사회적인 적대세력을 말살하거나, 격리

또는 감금하려는 정치적 희생제이다.

80년대 레이건 보수주의는 보수주의 도덕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AIDS 공황을 이용해 그들의 눈에 비정상인으로 보이는 동성애 해방운동세력을 희생양화 시킨적있다. 공화당 보수주의자들과 백인 인종우월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 종교 근본주의자들은 폭넓게 연합해, AIDS 라는 질병을 둘러싼 공황상태와 이성애자 내부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강박적 혐오증을 은유적으로 연결시켰다. 그들은 이런 심리적인 공포증과 편집증을 허위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질병을 의인화시켜, 이 질병에 동성애자라는 그들에 의해 대상화된 인격을 결부시켰다. 이는 심리적, 사회적인 공포의 표적을 자의적으로 실체화시키고, 자신의 상상에 의해 가시화된 표적의 제거를 통해 자신의 두려움과 혼란을 보상받고자하는 파시즘정

치의 특유한 문맥이다. 신 보수파시스트들은 동성애자들을 마치 인류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악마인양 실제화시켜 이들에게 사회적, 도덕적 이단세력이라는 낙인을 찍고 (나치들이 했던 것처럼) 마녀사냥의 포화를 내리 쏘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와 혼란을 대속시키기 위해, 그들의 이해에 반하는 사회적 소수세력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어, 역사상 유래없는 도덕주의 파시즘의 반동화를 초래했다.

이런 정치적, 도덕적 파시즘과 마녀사냥의 희생제에는 우리사회에서도 양상을 달리하며, 힘없고 가진것 없는 프롤레타리아에게,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이성애주의의 파시즘과 성적 비정상이라는 거짓규정에 맞서 싸우는 동성애자들과 성적소수자들에게, 동일하지만 다르게 재개되고 있다. 지배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이 거부하거나 혐오하는 정체성과 삶에 대해 비정상적인 삶이나 일탈, 질병의 일상이라는 낙인을 찍어 대고 있다. 이로 인해 억압당하는 이들의 최소한의 삶의 공

간(그곳은 소수자들만의, 소수자들만을 위한 게토가 아니다)은 폐허가 되고 그들에게는 숨쉴 공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 사회는 정상적, 지배적 일상에 건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이성적,심미적,도덕적 우월성의 위상을 부여하면서, 비정상성이라는 대상의 범위를 고안해 내려는 편집증속에서, 그럼으로써 이를 분류하고 영원히 사회바깥으로 배제하려는 그 무모하고 허황된 시도속에서 곁잡을수없이 황폐해져 가고있다. 본질적으로 정상인 삶, 사회관계, 사랑, 인격, 일상은 없다. 오히려, 자신안에 있는 자신으로부터 억압된 것들, 자신이 부정하는 자신의 다른모습을 비정상으로 규정지음으로써, 자신의 동일한 정체성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정상성을 보상받고자하는 유혹만이 있는것이다. 오로지 자신이 확신하는 자신의 정체성의 분열과 혼란으로부터 도망치고싶은 병든 유혹과 회피의 시도만이 있는 것이다.

정상인의 폭력과 광기에 의해 비정상이라는 굴레가 씌워진 모든 것들

-AIDS공포

AIDS는 특정한 질병의 상태다. PEST라는 질병과 비교해보면 페스트환자에게는 도덕적이고 성적인 은유가 결부되지 않았음에 반해 에이즈환자에게는 세기말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자라거나 정상적이지 못하고 추한 성관계를 남발한데 따른 응당한 댓가라는 식의 규정이 씌워진다. 아다시피 에이즈는 HIV라는 특수한 세균에 의해 체액을 통해 감염된다. 이것은 페스트도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재앙을 안겨다준 어느 질병이더라도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통해 감염될수 있다. 물론 페스트환자역시 당대의 윤리관, 종교관에 의해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 세기말적인 악마로 규정되었지만, 그것은 어느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는 질병이고 따라서 인류가 해결해야할 고난이었지만 현대의 에이즈처럼 그것이 특정한 인격에 결부되고 그 인간 유형자체를 제거해버리면 질병이 해소될것이라는 환상은 없었다. 다시 강조하자면 에이즈는 페스트균처럼, HIV라는 항균자를 통해서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다.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이 유포시키는 역병이 아닌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가 자신의 머릿속에 에이즈와 특정한 사회적 인격을 결부시켜 질병의 척결을 주장한다면 그는 결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발미로 자신이 혐오하는 인간을 제거해 버리려드는 파시스트다. 다시 말하지만 에이즈는 특정한 사회적 인격으로부터 비롯된다거나 에이즈 환자에 의해서 비롯되는게 아니라 HIV라는 세균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치유는 에이즈환자를 아니면 지배사회에 의해서 희생양이된 특정한 정체성을 배제하고 격리하는것이 아니라 HIV라는 세균을 치료하는 것이다.

학내 여성 복지 일상과 정치의 이분법

당장 총여학생회가 없어진다면 여학생들이 걱정할지도 모르는 문제가 생리대 자판기 설치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래 그렇다면 여학생들의 복지는 누가 해결해주나?

여성의 문제는 항상 공적인 담론에서 배제되었고 그러한 '정치적' 구조에 잡혀지 않는 여성의 일상 즉 여성문제가 있었다. 흔히 우리는 일상의 정치를 이야기하며 여성의 일상에 대한 정치화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오히려 여성의 문제를 일상과 정치, 여학생들의 요구를 복지와 정치의 구조로만 다룬다면 그 폭은 너무나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여성의 육체를 둘러싼 여러 맥락들과 그것을 통제하는 여러 정치 기제들에 대한 사고없이 그 어떤 '복지'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설명 생리대 자판기 설치하느냐의 문제더라도....

학내 문제에는 정치와 복지의 문제로만 구분되었다. 정치라는 것은 실제 소수의 몇몇 학생회의 간부들이 하달하는 방식이었고, 복지는 그 하달의 방식을(소수의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라고 말하면 너무 잔인할까?)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분할 속에서 운동권인 정치적 학생회와 소위 비권이라고 말하는 복지 학생회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복지

라는 것은 생활의 편의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그것을 해주는 학생회가 존재하게되고 복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총)학생회의 평가가 엇갈리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더라도 여전히 '정치'와 '복지'의 괴리는 매우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저 학우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종 언 '운동권'학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또 이 부분은 굳이 학생회가 하지 않더라도 '학생의 최우선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학교 당국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0에 학교측은 일방적으로

도서관 일반 열람실에 책을 두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몇일까지 책을 치우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영포를 놓았고 실제 그 날 학생들의 책을 모두 버렸다고 한다. 이 문제를 복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상황을 좀 더 잘 해결해주는 학생회가 남게 될 것이고 이 후의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덜어둔 채 학생의 복지 문제로서 처리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문제를 단순히 복지의 시각이 아닌 학생 자치의 문제로 사고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이라는 신분과 육체를 둘러싼 통제와 시각...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돈을 내면 교육의 과정을 소비하는 소비자일 뿐이다. 언제나 정해진 내용의 상품을 소

비하게 되고 우리는 돈을 낸 댓가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교육받고 있을 뿐이다.

생리대 재판기에서 생리 결석까지...

다시 생리대 재판기, 여학생 휴게실, 임신 휴학 불허의 문제는 더 이상 여학생의 복지의 문제로 다뤄질 사안이 아닌 것이다. 생리대 재판기 이전에 생리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보자. 1996년 노동법 개정에서 생리휴가 무급 판정이 나왔다. 그들의 논리를 따르자면 일을 하지 않았기에 급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항상 여성의 취업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자본주의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한 능력을 베풀는 것은 전 사회 발전(자본주의의 이윤 창출)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결국에는 생리, 임신의 휴가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일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여성이 되어버리게 되어 취업난의 악순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다. 과연 자본주의적 합리성, 효율성에 묶이지 않는 '사적인'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말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본주의적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지불되지 않은(unpaid)노동에 대해서는 그들은 '합리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지향하는 자본의 원활한 유통은 그들이 명하고, 평가절하는 가사노동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이 만약 모든 자본주의적 합리성에 기초한 이윤추구를 전제로 두고 노동의 댓가를 말하고, 지불하려 한다면 그들은 먼저 가사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자본주의의 합리성을 가장한 채 가부장제와 공모하여 여성을 영원히 가정이라는 공간에 묶어 두거나 여성에게 이중의 착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적인 공간에 뛰어드는 여성이 꽤

빡하여 여성의 육체의 특수한 맥락을 이용하여 그들을 위협하는 것일 뿐이다. 생리휴가 무급 결정은 궤변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서 '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리대 재판기를 설치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생리휴가에 대한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한 번 생리 결석을 요구해 볼까?

여학생 휴게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여성이 쉬다는 것은 의미를 갖는 것일까? 문득 조선시대의 여인들의 화려한 머리장식을 생각해 보았다. 머리장식이 남성적 미의 기준에서 남성의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을 접어두고 볼 때 그것은 여성이 낮 시간에 눕지 못하도록 하는 즉 쉬지 못하게 하고 늘 일을 하게 한다거나 어떠한 여성적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였다. 지금은 그러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으나 여전히 그러한 시각은 남아있다. 여성이 일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로만 취급될 뿐이다. 또한 여성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가부장적 시선과 통제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쉽게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다. 여학생 휴게실은 그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여성들의 공간이다. 공적인 장소에서 합부로 눕는다는 것과 잠을 잔다는 것들에 대해 여성의 육체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가는 다는 것이다. (물론 여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신체의 자율권이 생겨나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원터, 휴게실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 매 맞는 아내나 아동들이 폭력 남편을 피해 은신할 수 있는 쉼터가 존재하고 있고, 그 밖에 '소외받은' 여성들이 머무르는 쉼터가 있다. 그들은 이 공간을 통해서

로의 아픔에 대해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던 자신의 문제가 '여성'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도등지의 제 3세계의 여성운동이 조직된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성의 이야기가 오고가는 여학생 휴게실을 통해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다양한 이야기, 생리 임신 낙태 취업 결혼등의 다양한 일상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불혼에서 임신휴학까지..

이화여대 학칙에 '금혼조항'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마도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과 가족에 신경을 써야만하므로(당위) 학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풀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남녀공학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본분은 가정을 지키는 일인데 학업으로 인해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 열학교 여대생이 겪는 일이라는 하나 나오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일 수 밖에 없을까? 우리학교 대학원생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휴학이 실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1995년 4월 10일자 연세춘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 학칙 4장 12조>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휴학기간은 총 1년(2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되며, 소정의 기일내에 다시 복교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복무기간 동안 휴학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출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논문 제출시한은 석사일 경우 4년, 박사일 경우 7년이다.

여학생의 경우 대부분 대학원 재학중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한 연구를 이루지 못해(이 또한 여성에게 가족과 결혼이 덧씌운 굴레 때문이다. 만일 그녀가 결혼 후 피임을 한다면 그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반역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특히 시댁의 성화를 생각해 보았는가) 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그간의 연구업적이 인정되지 않아 보통의 '대졸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문제출시한이 짧고 출산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결혼한 여학생이 대학원을 제대로 졸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시간적 불평등은 여학생의 출산 휴학과 군 휴학의 두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남자가 가는 군대라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일(일단 국가권력이 개입을 하니까?)이기에 이에 대한 인정은 필요한 것이나, 여성의 출산의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

은 개인의 문제로만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공적인 정치라는 부분에서 잡혀지 않는 일상으로서의 여성의 삶과 고민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의 논리로 남성의 군대가 일정 기간의 '국가와 민족'에 봉사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대해 여성의 출산이 '국가와 민족'에 기여한 것들에 대한 인정도 필요할 것이다.



상상의 자

Come Together

계를 관청에는 동창자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 위르겐 하버마스

- 동물원에 갔더니 한 우리 안에 곰이 있고 다른 우리 안에는 뱀이 있다. 둘 다 같혀있는데도 뱀을 보면 몸이 오싹해진다.
- 백인이 기관총을 들고 미친듯이 총을 쏘고 있고 다른 채널에서는 두 흑인 남녀가 서로 키스를 나누고 있다. 키스 장면을 보고 있노라니 왠지 머리가 아파서 차라리 총싸움을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게이'라는 사람을 본적이 없는데도, 자꾸 머리 속에 떠오른다.

위험도 가지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대상에 대해 갖는 막연한 불안과 혐오를 심리학에서는 공포증 phobia 이라고 부른다. 위에 예로 들은 가상적인 상황들은 모두 공포증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공포증은 그것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한, 곧 그것이 변혁의 주체와 대상의 틈바구니에 녹아들어가 있다면, 모든 판단을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공포증 homophobia 은 그 단적인 예이다. 스스로를 '진보적' 인 '지식인' 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동성애' 라는 불가해한 실체 앞에서 자신의 위선을 여지없이 드러내곤 하는데, 몇가지 유형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모든 변혁지향적 패러다임들에 대해 노동패러다임, 혹은 계급적 패러다임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여성해방이나 동성애해방과 같은 '사소한' 것들은 계급모순이 해소됨과 동시에 저절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노동운동에 힘을 집약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여타의 요구들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을 특권화 시킴으로써만이 가능한 이 주장은 (혁명적 잠재력을 가진) 노동계급의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부터 실패한다. 더욱이, 이들은(우선순위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계급의 구성과 재생산이 성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성애주의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지천으로 성별화된 상징들을 배치하고, 또 임금근로자를 전제로 지배함으로써 이성애주의적 사회는 자신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해방운동과 여타의 인권해방운동의 구분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이다.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동성애해방운동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동성애해방운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외재적인 비판만을 수행하고 있다.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마침내 '동성애' 라는 것마저도 상품으로 만들어 내었는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필 동성애가 문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렇다면, 지금이야 우리가 인식하게 된 환경문제나 핵문제, 그리고 관료제에 저항하는 반문화운동, 인권운동들 나아가 (예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노동운동도 사악한 자본주의의 책략이란 말인가? 동성애의 부각을 자본의 논리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동성애해방을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의 수고를 단 한마디로 일축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는 모든 변혁지

향적 운동의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자기모순을 갖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옹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진 파쇼성을 우려한다. 오히려, 동성애해방운동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기획의 또 다른 모순이 드러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운동의 새로운 모티브로 삼아야 한다.

세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동성애가 미국의 포스트모던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 번성하게 되었다는 이 논리는, 가장 유치한 비판이지만 그 초점을 달리한다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동성애 공동체 내에서의 민족간, 국가간의 문화적/경제적 종속의 문제는 사실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 땅의 동성애자들이 풀어나갈 숙제이다.

흔지도 어떤 일년 반이 지났다. 캠프게더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단체이며, 대학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대동협)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오늘 다시 연세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보다 가치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보다 진보적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연세의 교정에서 여전히 우리를 알리는 어떤 종류의 짜라시도 반나절을 버티기가 어렵다. 춘추에 알량광고를 다시 싣는 것은 퇴학을 각오한 후에야 가능하다. 캠프게더는 백악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유머의 소재가 되었고,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다. '이상/저지/거역' 기획단의 이번 행사에 인사말이라고 쓰게 된 이 글이 난데없이 '이른바 지식인' 의 동성애관에 대해 논하게 된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인들이여! 차라리 그냥 동성애자가 싫다고 말하라. 그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양심적이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

여학생회와 학생회, 그리고 새로운 시도

제9대 총여학생회장 법학과 4학년 신유정

총여학생회장이 되겠다고 겁도 없이 뛰어다니던 그 때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선거동안 무수히 외쳐왔던 말들이 새삼 부끄러워지는 시기이다. 올 1년은 그 어느해보다도 '사건'들이 많았다는 핑계로 위안을 삼지만 제대로 지켜진 공약이 몇 개나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 죄송스런 마음 뿐이다.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재미있어하는 대중적 여성운동의 흐름을 만들고 싶었다.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과는 피터지게 싸우고 싶었다. 총여학생회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에게 '여성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사상, 내이념, 내활동'만이 옳다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주는 열린 학생회의 본보기가 되고 싶었다.

총여학생회장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총여학생회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믿었다. (과학생회도 아니고 단대 학생회도 아닌 '총'여학생회장이라니 하며 금방 존경스런 또는 겁먹은 눈빛이 된다.) 학생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총여학생회가 도대체 왜 있는건지, 있으면 걸리적거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2만 연세를 대표하는 학생회가 있는데 뭣하러 여학생회 따위는 만들어서 예산도 쥐아되고 요구사항도 들어줘야하니 정말 귀찮군 하는 눈빛으로 내려다 본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총여학생회의 위상은 항상 비틀거렸고, 나 자신도 어지러웠다. 특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여학생회장은 논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회 체계 내에서 여성운동이 독자적인 내용을 확보하면 할수록 체계 밖으로 밀려나고, 여성운동의 독자적 내용보다는 학생운동과 연결되는 것들을 주로 하게 되면 학생회의 여성동원부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나는 처음부터 학생회와 일정한 거리감을 가졌다. 왜냐하면 법대에서 여학생 모임을 만들 때 '동지'가 생겼다면 지원해주는 건, 쓸모없는 짓 한다면 혼을 내는 학생회 선배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를 부정하기보다는 학생회의 한계와 부족함을 여학생회로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사업들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했고 '여자다운'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편으로는 여학생회의 사업과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려 나갔다.

그러나 학생회는 여학생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었다. 여학생회는 당연히 학생회 사업에 동참해야 하지만 학생회가 여학생회의 사업에 신경 쓸 이유는 없었다.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위대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하찮은 일들을 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나는 결국 지치고 말았다. 자신들의 사상과 이론이 철저한 사람들과 싸우기엔 역부족이었음을, 내가 고민하고 신경써야 할 사람들은 학생회보다는 소위 '일반 학우'들이었음을 나중여야 깨달았다.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여학생회는 학생회가 존재하는 한 필요하다 생각된다. 선거를 통해서(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접어둔다면) 예산 집행과 공간 확보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학생회를 설득할만한 힘을 가진 학내 여성운동-또는 여성-의 정치세력으로서 여학생회의 존재 근거가 있다. (법대에서 여학생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학생휴게실 문제나 여학생 복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학생회장 후보의 1/4이 여성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총여학생회장의 존재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96년도 중앙운영위원 17명 중에서 총여학생회장, 생활과학대 학생회장, 간호대 학생회장, 단 세명만이 여성이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많은 한계가 있다. 남학생의 참여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학생회의 큰 흐름에 끌려다닐 위험이 높다. 더군다나 총학생회의 특별기구라는 애매모호한 위상은 독자성을 부여한 것인지, 총학생회 산하 기구일 뿐임을 명시한 것인지 라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문제모임연합 등 그밖의 어떠한 (여)성정치세력이든 추구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학생회라는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연합체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제기와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독자성도 확고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기존의 학생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4%의 원조는 완전히 중단될 지도 모른다. (올해 7년이 넘는 이과대 여'학생회'의 예산 '정식화' 문제로 총학생회와 논쟁까지 했으나 '고려해보겠다'는 말 뿐, 결국 예산은 받지 못했다.)



12월 8일

성연구모임 - 동그래지는 온쪽이

6월 말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1단계 세마나로 여성학 고전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국 사회 여성의 현실이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성의 역사,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페미니즘이론의 고찰을 끝으로 범람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했고, 2단계 세미나는 대중문화와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영화, 연극, 소설, TV 등 대중매체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것으로 2학기 중에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이다. 3단계로 법여성학에 관하여 총론과 각론을 살펴볼 예정이다.

약 17명 가량이 활동하고 있으며, 법대 여학생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세미나키리 :

1. 한국여성의 현실 : [한국의 여성과 남성] 조혜정, 문학과 지성사
2. 성의 역사 : [성의 역사] 레이 탄나힐, 김영사
3. 여성다움, 남성다움 : [제2의 성] 드 보부아르, 울유문화사
4. 페미니즘 이론 : [페미니즘 이론] 도너번, 문예출판사
- 자유주의 여성해방론 : [여성의 연속] 존 스튜어트 밀, 이화여대 출판사
- 맑스주의 여성해방론 :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엥겔스, 아침
- 급진주의 여성해방론 : [성의 정치학 1, 2] 케이트 밀레트, 현대사상
-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 [여성의 지위] 미첼, 동녘

2학기 세미나 계획서

1. 페미니스트 영화 연구 : [페미니즘/영화/여성] 유지나, 변재란, 여성사
2. 소설로 보는 여성의 삶과 미래 : [여성해방의 문학] 또 하나의 문화
3. 현대 페미니스트 연극 : [변신과 가능성의 무대] 헬렌 케이사, 여성사
4. 여성운동단체 어디까지 왔나
5. 매체가 만들어내는 여성의 모습 : [TV가 가까이 보기 멀리서 읽기] 현실문화연구
[광고의 신화와 욕망] 현실문화연구
6. 언어와 여성 : [언어와 여성] 마리아 야젤로, 여성사

(상당히 막대한 양의 세미나 커리큘 '일상/자치/저항문화 기획단'에서 주교제만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이다. 총여의 한계를 넘어 자치질서로!

1. 학생회 권력은 절대 권력인가

한총련 사태 이후, '대학'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떠한 곳인지를 생각해 보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중도 앞의 낯 사건에서부터, 종합관 이념교육관화, 자보 및 연세 춘추 회수, 2번에 걸친 전경들의 침탈.....그리고 학내 단대 학장들이 불인 자보와 루스 채플에서의 총장의 발언을 생각해 본다. 대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겠지만, 그 자보에 의하면 대학이란, 권력 투쟁의 장이 아니라 순수한 학문 탐구의 장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학이라는 것이 학문 탐구의 장일 수가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파 들어갈 필요가 있다. 과연 '정치'란 무엇이며,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대학이 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 그리고 과연 대학이라는 장을 탈정치화시킬 수 있는가? 탈정치화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정치성의 응축과 주변의 탈정치화 전략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의 길을 걷고 있다. 문민정부가 도래했다고 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하나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는

모순을 숨기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그 보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속에 숨어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보수주의는 극단적인 정치화와 탈정치화의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의 영역으로, 또는 하나의 주체로 모든 정치성을 응축하는 것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주변화시키고, 대상화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집단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가능성, 저항

국가란 바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생회 체계도 어느 정도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즉,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과의 지속적인 분할은 가부장제가 그 존재 근거로 삼고 있는 부조리적 공적인 것의 분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과 자발성을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생각해보자.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치적'인 것이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 경계선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불분명하나, 그래도 여전히 그 경계선이 마치 절대적이고 근질적인 것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지배권력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폭력들을 은폐해버린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학이다. 대학의 순수성과 비정치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대학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전략하기 위한 수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순수성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대학이라는 장소를 탈정치화시키며 그리고 대학생들을 정치에서 거리가 먼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학이라는 곳이 얼마나 정치적인 곳인가를 볼 수 있다. 즉, 그 순수성이라는 도덕성이 바로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이 사회의 지배권력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즉, 대학이라는 곳을 학문도 아닌, 사회에 복무할 인간형들을 재생산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알란 파커의 영화 [백]의 한 장면을 생각해본다. 학생들은 획일적인 교육 아래에서 획일적인 기계로 변하며, 학교라는 것은 그 기계 부속품들을 대량생산하는 공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알려준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에 우리들은 매일 같은 수업을 들으며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미래' - 이것은 우리의 미래인가? 우리 자신들이 설정한 미래인가?

사회와 가장 근접해있는 교육의 장

이라는 면에서 대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곳이다. 그리고 그러한 만큼 지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 대학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비정치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라는 환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 모순이라는 것도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게 되며,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내재화되면서 학생 사회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닐까.

학생회, 국가, 가부장제

현재의 국가 권력 구조 내에서는 권력과 정치가 저 위에 있는 지배권력으로 집중되며, 그 위는 주변화되며 수동화된다. 대학생은 일종의 '피지배계층'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국가의 철저한 위계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상,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화가 바로 이 대학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바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 내에 자리잡고 있는 학생회 권력 구조가 바로 이러한 국가 권력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위계 질서에 입각한 권위주의적인 학생회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학생들의 모든 정치성은 학생회로 집중되며, 다수의 학우들은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일반 학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매년 선거가 치러지면서 학생회라는 틀을 채우는 내용은 변하지만, 여전히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법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국가란 바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생회 체계도 어느 정도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과의 지속적인 분할은 가부장제가 그 존재 근거로 삼고 있는 부르조아적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분할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학생회는 항상 공적인 영역이다. 그

역이다. 그리고 항상 공과 사의 이분화 속에서 여성들은 사적인 영역으로,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요즘 여학우들이 과학생회장장이 많이 되지만, 단대 그리고 총학생회장으로 여학우가 되는 일은 드물다.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정치에 무관심 내지는 무능력하다는 것은 지극히 의심스러운 논리이다. 남학우들이 의도적으로 여학우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학우들이 본질적으로 정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공사의 이분화,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화에 입각한 권력구조 그 자체에서 여학우들은 밀려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의 허상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허상들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모든 권력이 학생회로 집중되고, 대학의 정치성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성)이 선

거 기간으로 집중되고, 그리고 개인의 정치성이 투표 한 장에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은 간접민주주의일 뿐이며, 부르조아적 허상이다. 우리는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시도해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미화되고 있는 학생회 권력 구조

의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며, 학우 각자의 자발성과 적극성, 그리고 정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권력과 정치성의 집중화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학우들을 만들고 이와 대립되는 '전위적'인 또는 파권주의적인 학생회를 만들고 있다.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학생회는 학우들을 대신해서 대사회적인 투쟁을 하거나 학교당국과 싸우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학우들의 정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내지는 학교 당국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단 한번의 선거를 통한 학생회의 선출이 학우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

신이다.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학생 운동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80년대 초반, 학생자치활동이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우리 학교에는 제 3 연대(여학생 연대)로 편제된 여학생회가 있었다. 일명 '녹양회'라고 불리웠던 이 모임은 어용적 관제적 성격을 띄고 있

2. 총여학생회와 여학생 자치 질서....

총여학생회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설립되었는가?

연세의 여학생운동은 88년 초에

어 독자적인 여학생 운동을 해나가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비합법적인 학생운동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여성학 연구모임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여성문제의 본질, 여성운동의 변혁적 역할 등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문제 연구회 등이 나타났다. 이들 역시 독자적인 여성운동이 아니라 주류 학생운동의 흐름 안에서 그 위치를 찾으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다가 84년부터 각 학교마다 학생의 대중자치조직으로서 총학생회를 세우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때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몇몇 학교에서는 여러 차례 심각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총여학생회'를 구성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총학생회가 생길 당시 여학생부로 편제되었다. 이것은 녹양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학생 운동가들의 편향된 활동 등으로 실제 여학생 운동을 진행시켜 나갈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여학생부로 편제된 대부분의 남녀공학 대학이 그러하듯이 우리 학교 여학생부의 3년간의 활동은 극히 소극적이며 정체되어 있었다. 여학생부장만 있는 여학생부는 정치투쟁에 힘쓸려 선전과 사회를 담당하는 것이 주업무였다. 또한 여학생부는 남학생 중심의 학생회 활동에 여학생들이 참가하는 유일한 합법공간이었으나, 물론 학생운동을 하는 여학생은 많았다 - 단순히 학생운동을 하는 여학우가 아닌 독자적인 여학생운동을 할 사람을 확보하고 여학생 운동을 대중화할 구조

로는 한계가 크게 드러났다. 87년 초 대중운동이 활성화되고 대중조직이 생겨나면서 여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활동하고 있던 조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이들은 그간 여학생부의 활동 정체요인을 조직구조의 문제에서 찾았다. 이것은 여학생운동이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중사업을 펼쳐나가고 여학생운동을 앞으로 진행시켜나갈 사람들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총학생회 체계로서는 이를 담보해 나갈 수 없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여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여성운동의 변혁적 성격과 임무, 당시 여성들의 생활 처지와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목적의식적인 여학생운동 주체의 활동과정을 통하여 여학생의 정치적 각성과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②여학생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사업이 계획, 평가, 집행까지 일관되게 담보되어야 한다.
- ③스스로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조직적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서 사람들은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 위원회'(이하 여준위)를 발족하고 총여학생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여준위는 올바른 여성운동의 관점에 선 여성운동론을 정립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 조직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고 전반적인 조직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 다양한 모임을 확대 발전시켜 조직기초를 다지고 일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등의 조직내용을 준비하고 내용을 축적할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여기에는 운동분리주의라거나 조직만능주의라는 등의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88년에 총여학생회를 만들게 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1988년도에 제 1대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어서 현재 9년간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그 당시 여학생들의 독자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건설된 총여학생회가 현재 비슷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여성/성정치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총여학생회 제도의 한계점

일단은 총여학생회 제도의 긍정적인 면들을 살펴본다. 첫째로, 여성들만의 권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은 유권자가 여학우들에게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오로지 여학우들의 결정 사항이라는 면에서 총여학생회가 자리매김될 수 있다. 즉, 여성들만의 권력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둘째, 학생회라는 제도는 학교당국과 학우들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산 책정이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학내 생리대 자판기 설치나 여학생 휴게실 등 복지 문제는 여학생회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있다. 셋째, 여성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총여학생회 제도가 한계점을 갖는다. 일단은, 왜 여성들의 권력체가 '학생회'라는 기구만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일까? 이것은 '권력'이란 무엇인가'는 막대한 질

문에서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르나, 왜 학우들의 권력이라는 것은 대의제를 통한 학생회라는 상위 기구로만 구현되는가? 우리는 권력을 다시 정의하는 데에 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현재의 권력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권력 구조이며, 이렇게 하향식의 구조 속에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새로운 권력 구조의 창출이란, 이러한 구도를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권력' - 자발적인 권력, 타인을 배제하고 억압하지 않는 권력 - 을 사고해야 한다. 둘째로, 총여학생회가 학교당국과의 교량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상적인 학교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부족함 등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당사자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전지전능한 조직이 아니다. 그럼에도 학우들은 한 번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총여학생회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모든 권한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총여학생회는 어떠한 상위체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학교 당국도 유일한 대화의 대상으로 학생회만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질적으로 '학생회'가 아닌 조직은 학내에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학생회가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환상을 낳고 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학생회라는 제

도로는 여성운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 산하에 있는 특별기구 소속이나, 범연세적인 선거를 거쳐 학생회로 자리잡는다는 면에서 당당한 '학생회'이다. 그런데,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는 일정한 싸이클을 통해 운영된다. 실질적으로 학생회를 잡은 구성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등록금 투쟁, 임금 투쟁, 통일 투쟁 등의 일정한 달력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도 '학생회'이기

에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운동을 하려는 시도들은 항상 무마되어버렸다('이 암울한 시절에 왜 여성 문제?').

여기에서의 대안적인 질서란, 지리 열렬한 일상성을 해체시킬 수 있는 질서, 정치와 비정치의 이분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질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괴리를 없앨 질서이다. 이것이야말로

실질, 총여학생회가 유효하 아니면 유효하지 않는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학우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이다. 더 이상 논의와 실천은 몇몇 선봉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학우들이 총여학생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총여학생회가 학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아직 대의제를 둘러싸고 진정한 직접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여성운동의 실현이 되지 않을까. 운동이라고 해서,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해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대사회적인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운동'을 이야기하고 '권력'을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들이 따른다. 실질적으로 '정치'와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지 자기와 먼 이야기 같고, 원지 자기와 동떨어진 이야기만 같다. 여성에게는 특히 그렇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이란 철저히 비정치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는 바로 자신의 삶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서로의 고민들을 털어놓는 것일 수가 있으며, 몇몇이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더 소중할 수 있다. 작은 움직임에서 부터 거대한 움직임까지, 다양한 움직임의 다양한 성과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몇몇이 모여 수다를 떠는 소모임에서부터 대사회적인 투쟁을 하는 정치조직까지,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실천들 속에서 서로를 보강해줄 수 있는 흐름이 바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총여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다.

학회나 소모임, 또는 위원회는 학생회 간부를 배출하는 '예비학교'도 아니며 학생회 간부들의 학습장소가 아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학우들이 직접적인 참여에 기반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정치

여학생운동의 새로운 시작
총여학생회라는 제도가 여학생들의 독자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설립

를 사고하게끔 해주는 독자적인 실천이다. 그리고 학생회라는 거대한 망 속에서 숨겨질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물질

적 이데올로기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연히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여성자치연합'(가칭)을 제안합니다!



1. 여성 자치 연합을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요청은 학내 여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여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조직화된 움직임입니다. 투표라는, 일상과는 단절된 정치적 공간을 통해 선출된 총여라는 권력체의 현실적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하나의 단체가 모든 여성적대의 담지자로서 존재하는, 일상(日常)과 동떨어진 이상(理想)적 소통 공간에서 모든 여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어떤 환상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여성의 권익은 대변되지 않는, 자발적 주체성에 의한 내발음으로만 발현되고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2. 총여의 빈 자리에 연대의 장을...

총여학생회의 성격은 총학생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비판할 때에도 총여는 총학과는 전혀 다른 수위에서 말해져야 합니다. '총여가 없어진다'라는 말에는 대단한 위기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학생회가 없어진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과 다른, 여성들의 또 한 번의 희생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온 여성들에게는 총여학생회가 어쨌든 그나마 권익 대변체로서 우리의 실낱같은 희망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 없고, 무책임한 총여 해체론은 대학 사회에서마저 소외의 대상이었던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기존 총여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들의 요구들을 분절화된 이질성의 바다에 내던져버리는, 무대안적인 총여 해체가 아닌 새로운 여성적 연대의 모색입니다.

3. 조직이 아닌 조직화로...

이제까지 총여의 모습이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있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조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된 듯한 느낌으로 약간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소통의 그 다층적 공간들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총여의 형식을 포기한, 더 나아가 기존 조직들의 국가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양식을 거부한 새로운 여성적 연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유일한 대표성을 지닌다는, 그만큼의 적절한 대중성도 지닌다는 전체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성들의 동시다발적인, 그리고 반위계적인 모든 목소리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조직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들에는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의 경계는 없습니다. 모두가 말하고, 요구하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진정한 대표성이 아닌, 진정한 주체적 자발성입니다.

4. 연합체는 하나의 조직이 아닌, 연대의 테이블입니다.

연합체란, 하나의 상위 조직이 아니며, 하나의 의견, 하나의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 학생 사회의 억압적인 권력 구조를 뛰어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 자치 연합이란, 학내 여러 소모임에서부터 정치 조직까지, 여성 문제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자 하는 모임들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각 단체는 그 단체의 특수성을 살리고, 독자적인 생각과 행동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합체 말입니다. 학내에서 성에 대한 담론을 퍼트리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치열한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적인 '일상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활동일지라도 이러한 상이한 일상들에 기반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상과 정치에 이분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야 힘의 중심점이 존재하지 않는 여성들의 단수적 자발성에 기반한 자율적 연대체를 제안합니다.

'일상'에 침을 뱉을 작은 영화제

레이피스트(Diary of Rapist)

11월 25일 (월) 늦은 6시

폭행에 관련된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대변하고 비판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아니면 성폭력의 심각한 문제를 감추고 섹스 심벌에만 집중하여 상업영화이 소재로 쓰는 저질 영화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아코모 바티아로 감독은 성폭행을 정면에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이야기도 풀어가고 있다. 루카는 건너편 건물의 간호사 발레리아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감정의 표출은 강간이라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그는 강간이라는 것을 남성성의 과시로 여길 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루카 심리의 이중성과 비정상적인 측면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성폭행이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에 의해, 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영화에서처럼 성폭행범이 다소 비정상적이거나 극심한 충동에 의해 성폭행이 일어난다는 가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편 루카는 발레리아의 행적을 쫓아 다니면서도 계속 다른 여성들을 성폭행한다. 결국 그는 자기가 강간한 적이 있는 로레나에게 의해 살해 당하게 된다. 로레나는 우연히 경찰서에서 루카와 마주치지만 그녀는 신고를 거부한다. 이것은 여성을 동진 가부장적인 경찰제도와 법제도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 될 수 있다. (혹시 성폭행 피해자 여성에게 행해지는 질문 방식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녀는 이 과정에서 또 한번의 정신적 난도질을 당하게 된다.) 이 영화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전개시켜 나가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관객들은 루카가 저격 당할 때 마음 한편으로 통쾌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성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인 것 같지만 오히려 성폭력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11월 26일 (화) 늦은 6시

무기력하고 그래서 타락한 것같이 보이는 소설가 효성과 결벽증에 시달리는 동우, 남편의 동우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소설가를 사랑하는 보경, 그리고 순수하게 소설가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맹목적인 문학소녀 민재가 등장한다. 네 인물들은 사랑, 결혼, 혹은 불륜이라고 이름지을 수 있을만한 관계와 현실적인 육체를 각각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영화의 진행에서 차례로 초점이 맞추어지며

설정된 단 하루의 시간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정서는 나른하고 밋밋하기까지 하다. 각 인물들의 하루는 시간적으로 구성되어 일상적인 행위와 사건들이 모이고 중첩되고 굴절되는 효과에서 또 다른 특이함을 구성한다. 기본적인 줄거리가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개연성은 그다지 찾기 힘들고 카메라도 인물들의 캐릭터를 확대, 축소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편안하게 따라 움직일 뿐이다. 어쩌면 상황과 인물에 대해 설명하려는 장면이 없이 너무나 많은 여백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줄거리를 굳이 연결시키려 애쓰느니 정말로 상황만을 충실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관객의 의도에 따라 많은 상상의 여지를 남길 것이다.

섬세한 일상에 비일상적인 죽음이라는 소재가 개입되어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는 점은, 영화를 보는 사이에 자신의 일상적인 면모들을 그 속에서 떠올리고는 덮어두었던 그 시시콜콜함을 재구성하여 되새김질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알마타나 외세게 재수가 없는 어떤 하루일수도 있고 무기력하게 침전한 채로 걸어다니는 어떤 하루일수도 있다. 어쨌든 이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호기심많은 옆집 아줌마와 싸움을 벌이는 정육점 주인, 그리고 버스 옆 자리에 앉은 주정뱅이 아저씨가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는 현실과 그 속에서의 자신의 육체인 것이다.

모리스(Maurice)

11월 27일 (수)

E. M. Foster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20세기 초반 영국 사회에서 그것도 캠브리지라는 대학 사회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목 받을 만한 영화다. 최근에 개봉한 [프리스트]라는 영화가 우리네 가슴을 설레게 했지만 그나마도 왜 그 신부가 동성애자라고 정의되어지는 지를 모를 정도로 무참히(?) 잘려나가 버린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정식으로 수입된 작품작품은 아니지만, 동성애라는 성 정체성 때문에 느껴야 하는 사회적 현실과 내면적 고민을 진솔하면서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주인공 모리스는 당시 귀족 자제였다. 동성애라는 개념은 생각조차 못했고 단지 유년시절 어렸을 때 자신의 성향을 느낄 따름이었다. 그러던 그는 캠브리지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클라이브를 만나게 된다. 그는 클라이브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확신을 갖게 되지만 클라이브는 끝내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여 모리스를 버리고 여성과 결혼을 한다. 지금에도 결혼의 문제는 동성애자들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인데, 당시 귀족층에 있어서는 오죽 했으랴! 어쨌거나 방황하는 모리스, 자괴감과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또 한번의 사랑이 찾아온다. 이번에는 하인인 스커더와의 사랑이다. 동성애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신분이

라는 또 다른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영국을 떠나는 현실도피였다. 하지만 모리스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질 않았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혼란, 사회 속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모리스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고민과 번뇌 속에서 결국 모리스는 동성애자로서의 인생을 선택함으로써 어제의 짐을 덜어내게 된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면서도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는 클라이브와 많이 방황했지만 결국 자신을 찾아내는 모리스의 뚜렷한 대비는 이 영화의 긴장을 유지시키는 요소이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만큼, 아니 동성애자의 삶에 있어서만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절실할 수 있을까? 결국은 결혼을 선택하는 클라이브와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모리스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앞으로의 그들의 일상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기에.

휴 그랜트가 동성애자로 나온다는 것만을 흥미를 끄는 이 영화를 아무쪼록 열려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을 후원해주신 분들

강혜관 (비교문학 석사과정)

채규형 ((색수열리트 성의 정치) 번역)

연진희 (논문 91)

김기원 (자연과학부 96)

한지연 (법학 93)

중앙 동아리 씨울 성정치 소모임

정보통신학회 Lain

연세 동성애자 인권 모임(Come Together)

충기독교학생회 SCA

연세과학

우리들의 목소리로 발언하고픈 연세인의 모임

제9대 총여학생회

법대여학생회

감사합니다!